

Vol.87 2024. 11

특집 : 교회의 선교 참여  
FMB, SRDC, WMTC 선교저널

# FMB Missio Dei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Missio Dei  
Vol.87 2024. 11



• 발행인 | 주민호 • 발행처 | 침례교해외선교회(FMB) • 발행일 2024년 11월 14일 • 홈페이지 [www.fmb.or.kr](http://www.fmb.or.kr)  
• 주 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번길 10,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2층  
• 연락처 | Tel. 02-2619-2202-4 Fax. 02-2619-8797 E-mail. [fmbkorea@fmb.or.kr](mailto:fmbkorea@fmb.or.kr)



- + Missio Dei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 + Missio Dei는 FMB와 FMB 산하기관인 SRDC, WMT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통합 선교 저널입니다
- + 침례교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FMB)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당대에 주님이 다시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 Contents



- 제목 : 주님 함께하시네  
- Photographer : 김민호 선교사(우크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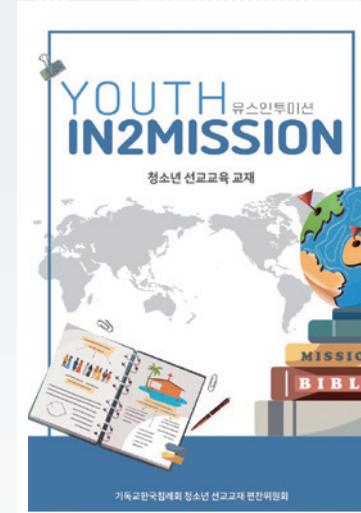
Missio Dei 표지를 장식할 생생한 선교 현장 사진을 보내주세요.(인물, 풍경, 사역 등)

• 파일명을 '이름-사진제목'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FMB Missio Dei

머리글	03
청년선교동원	04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	10
교회의 단기선교	20
로잔대회	26
선교축제 만만세	36
FMB 선교포럼	48
MK 캠프	54
지부장 연례회의	60
중앙아시아 선교사훈련센터	64
MUT-Pro 일본 훈련 소감문	66
사진으로 보는 MUT-Pro 일본 훈련	72
MUT-Senior 훈련 소감문	74
사진으로 보는 MUT-Senior 훈련	80
인턴선교사 소개 및 기도제목	82
인턴선교사 훈련 소감문	84
선교사 이야기	86
기관별 사역 일정(FMB, SRDC, WMTC)	93
in2mission 안내	94

# 청소년 인투미션 교재 발간



**목적** | 한국교회 다음세대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선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

**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용도** | 교회 수련회, 교회 혹은 학교 선교주간, 단기선교 훈련프로그램, 공과교재, 학교 선교 수업 등

### 특징

- 1) 12과로 구성되어 필요한 과를 선택하여 학습 가능
- 2) 침례교해외선교회에서 제공하는 선교 최신 자료 사용
- 3) 각 과별로 3가지 이상의 학생 활동자료를 수록해 활동적인 교육이 가능



• 본 교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청소년 선교교재 편찬위원회에서 제작했습니다.  
• 가격은 2만원(교사용 바인더)이며, 문의 및 구매는 세계선교훈련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42-828-3371, wmtc94@gmail.com**

### [ FMB, SRDC, WMTC는 재정이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 행복한 동행 - 후원의 종류

- 재정후원 : 각 기관들의 사역을 위한 일반 후원과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헌금
- 중보기도 : 분기별로 소식지를 활용하여 기관들과 선교사들을 기도로 지원
- 재능기부 : 기타 행정 지원 및 MK 교육, 돌봄지원

#### 📍 행복한 동행 - 재정후원방법

- 각 단체별 후원 계좌를 통해 직접 일시 후원, 정기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침례교해외선교회 : 256-890033-76504 (하나은행,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 선교전략연구개발원 : 990-007953-940 (하나은행, 기독교한(선교전략))
- 세계선교훈련원 : 461301-04-598321 (국민은행, 세계선교훈련원)

## 교회의 선교 참여

주민호 선교사 (FMB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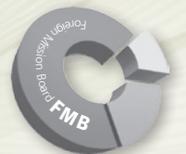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천명하셨다(눅 19:10). 보냄받아 오셨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사셨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와 목적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여 영혼 구원에 힘쓴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라시고 명하신 영혼 구원의 범위는 내 가족, 내 이웃만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하셨고, 더 나아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위임도 하셨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존재이다. 이미 보냄받은 존재로 주변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고 사역한다. 내 주변의 내 혈육, 내 문화, 내 민족, 내 언어의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교회가 선교적 책임을 감당한다. 당연하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민족은 어떻게 하나? 흑암에 살던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밖으로부터, 다른 민족의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값 지불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의도적 순종과 움직임을 계속해야 한다. 교회라면 선교 참여를 계획하고 실행함이 마땅하다. 아니 마땅함을 넘어 우리는 선교 참여를 일상화하고,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해외선교회는 선교 활성화와 지역교회의 참여를 돕고자 “만민세 선교축제”를 벌이고 있다. 인턴 선교사와 황금기 선교사 제도를 통하여 젊은이와 은퇴 후 성도들의 선교 동참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 현장 선교사들과 함께 잘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역교회 단기 선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선교지가 살아나고 지역교회도 크게 도움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선교는 결코 일부 교회들만의 선교가 아니다. 3,500여 침례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 참여 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주님의 칭찬을 온통 독차지할 침례교회들의 선교 참여를 기대한다.



# 교회의 청년들을 위한 선교동원, 어떻게 해야 하나?



김기태 선교사 (FMB / BCM 대표)



오늘 한국교회는 선교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선교현장마다 후임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은 많은데 실제 갈 선교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교훈련원에서 훈련받는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45세-50세 정도가 된 것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기독 청년 세대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선교에 관심이 없는가?



물론 한국교회가 청년 세대를 잃어버린 것에 원인도 있지만, 여전히 기독 청년들은 선교에 관심이 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기독 청년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다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학 캠퍼스와 교회의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세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오늘 20대의 청년 세대들(1995이후 출생)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이다. 과거의 그 어떤 세대도 디지털 문명에 이렇게 가깝게 사용하며 자신들의 문화 속에 쉽게 접목한 세대는 없었다. 오늘 청년 세대들은 또래 집단 간의 문화와 사회와의 관계를 스마트폰을 통한 SNS로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필요와 소비와 도움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 오늘의 세대는 아날로그적 사고와 문화의 시대에서 자란an 기성세대들과는 많은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을 인지하는 방법이 다르고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래서 헌신하는 방법도 다르고 헌신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 이런 청년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차용)라고 부른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젊은이들을 선교 동력화하기 위해서는 동원하는 방식부터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의하면, “크리스천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중시하며 그에 따른 실천을 중요시하며 교회와의 연결을 중시하며 활발히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교회의 기성세대는 오늘 청년 세대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독 청년들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예배와 소그룹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오늘의 기독 청년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다만 그것을 선배들로부터 제대로 보고 배운 적이 없기에 그들은 종종 방향을 잃는다. 그들에게는 다시 흔들기 발이 필요하고 달려갈 꺾대가 필요하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하기에 앞서 먼저 교회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청년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는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청년들과 공유함으로써 청년들이 선교 비전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부름받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요17:18)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에 헌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해외 선교도 그중에 하나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주(lordship) 되심의 결과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

을 사는 것에 먼저 헌신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는 선교적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와 선배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고 싸우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 담임목사나 청년대학부 사역자, 캠퍼스 간사들이 선교적 삶에 먼저 헌신하고 실천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전해야 한다.

**둘째, 청년 세대의 행동 양식과 문화를 통해서 동원해야 한다.**

교회는 청년들을 선교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에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이고 지시적인 동원보다는 청년들 스스로에 의한 선교동원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제까지 교회에서의 청년 선교 동원은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계획과 안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 청년들은 자기들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고 싶어 한다. 청년들은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느끼길 원한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선교포럼이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

도록 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한다.

경청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진정한 공감기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기 일어날 때 청년들은 비로소 움직인다. 우리 세대가 교회의 청년들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게 너무 많다. 청년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더 많이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사실이다), 그래도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 안에서 선교가 일어나도록 지지해 준다면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과 실제적인 동원이 일어날 것이다. 선교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모임과 세미나를 열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청년이 자신의 삶에서 선교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개인적인 사명과 교회의 비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의 의견과 정서를 존중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비전이 더욱 공감되도록 하여, 이러한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 교회 안의 청년들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들을 믿어주고 지지하라.

**셋째, 청년들을 선교에 자주 노출 시켜야 한다**

청년들이 선교에 더 많은 관심과 반응을 보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교 주일이나 선교 주간을 정하고 선교사를 초청하거나 선교에 도전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년들을 도전하고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교단 선교회인 FMB에서는 <지속적인 선교를 위한 8단계> 세미나가 있고, 교회를 직접 찾아가 선교 주간이나 선교 주일(주일) 행사를 하도록 돕는 <만만세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요청하여 교회가 FMB와 동역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선교대회(Baptist Vision, 선교 한국)에 참가하는 것과 단기선교여행을 보내는 것,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와 만나게 하는 일, 청년 모임에서 스스로 선교사를 초청하여 청년들이 선교사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일 등은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파송, 후원선교사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자신들이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응답 됐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자신들이 국내에서도 직접 선교현장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교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하게 하라. 또래 친구나 선배의 이야기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이 있다면 지속적인 멘토링이 필요하다. 헌신한 청년의 영적 성숙의 기회 제공과 함께 그의 선교 헌신이 사라지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대학생이면 침례교대학캠퍼스 단체인 BCM에게, 졸업한 청년이면 FMB 동원팀과 연결하여 계속 멘토링을 받도록 도와주라.

### 넷째,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한다.

단기선교에 대한 가치와 효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지만, 단기선교는 여전히 중요한 선교동원 사역이다. 단기선교는 청년들을 선교적 삶과 선교사적 삶에 헌신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온 청년들은 선교적 삶과 사역에 대한 헌신이 훨씬 높다. 단기선교에 참여한 뒤 선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80% 이상이다. 그러므로 단기선교는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사역에 매우 중요하다. 1-2주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좀 더 오래 동안 선교현장에 머무르며 선교사의 삶과 선교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교단 FMB는 <인턴십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2주 정도 선교사



로서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훈련하여 현장에 사역하고 있는 장기 선교사에게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실습할 수 있도록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강력히 추천한다. 교회 지도자들(목사, 사역자, 집사등)이 구체적인 선교훈련에 참여하거나,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일 년에 한 번은 청년들이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는 지원하고 배려하면 좋겠다. 단기선교를 가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FMB 동원팀에게 요청하라.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시작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수하더라도 하는 것이 낫다. 행동하면 실수하더라도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정말 많다.

### 맺는 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할 것인가?>라는 글을 부탁받고 한동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학생운동 사역자로, 지역교회 선교 목사로, 현장의 선교사였지만 달라진 한국교회의 환경이 그리고 예전의 경험이 무슨 도움이 될까? 와, 25년 만에 선교지에서 막 돌아온 내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청년 세대들을 이해한다는 것의 한계가 있기에 실제적인 제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의 한국교회와 선교사 동원의 현실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만나본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 시대는 지나갔노라고 말하는 소리도 듣는다. 현실은 그렇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 한국에 돌아와 +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다시금 희망을 본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무언가 다시 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과 <우리 침례교단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이 보인다>는 믿음이 생긴다. 다시 한번 캠퍼스의 부흥과 열방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일어나는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들을 보고 싶다.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히박국 3:2)

#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

— 8단계 세미나를 듣고 —



정태호 선교사 (FMB / 동원팀장)



“8단계 세미나 오세요” “무슨 세미나요?” 처음에 8단계 세미나라는 말을 듣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8단계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한국적 정서에 익숙한 나는 아직은 단계 또는 몇 가지 이런 제목이 생소하기도 하고 잘 들어오지 않았다. 잘 알지 못하여 책을 읽어 보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목사님들께 오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세미나

냐고 물어보시면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책에 있는 대로 “지속적 선교를 하기 위한 세미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듣고서 와 주신 목사님들께 지금도 감사를 드린다. 어떤 세미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목사님을 접촉했고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다.

지금부터 요약한 것은 강의를 녹음해 간략하게 녹음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3일간의 세미나를 적은 용량으로 요약했기에 충분한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싶으면 세미나를 참석하여 듣기를 권하고 싶다.

## 8단계의 선교

주 교재는 선교상담 지속적 선교를 위한 여덟 단계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었다. 1. 목회자, 2. 지역교회 동원, 3. 교회사역, 4. 선교사양성, 5. 타 문화 선교계획, 6. 선교사 선발 및 훈련, 7. 동역자 계발, 8. 선교지라는 순서로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이 8단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선교사들이 그동안 많이 논의하고 배웠던 제목들이라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무엇을 가르칠까? 기대가 되었다.

강사는 할 커닝햄(Hal Cunnyngnam) 선교사이시고 통역은 이금주 선교사께서 맡으셨다. 강사님은 첫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컨설팅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끝나고 나면 다 이해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 하신다. 그때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나는 ‘정말 그럴까?’하는 의구심도 찾아왔다. 선교지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서로 논의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다. 왜 선교사가 선교지에 오래 있지 못할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했다. 동역자들이 모여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논의할 때 포스트잇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았는가 붙여보기 시작했다. 그 많은 포스트잇 가운데 같은 문제들을 주제별로 모아보니 바로 8개의 주제가 나왔고 그 주제를 단계별로 연결해보니 8단계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8단계 세미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8개의 단계를 잘 넘어갈때 교회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 8단계를 지역교회에서 시작해서 선교지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거쳐야 선교가 이루어지고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교회들이 8단계 중에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 때 지역교회가 비로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단계 목회자와 8단계 선교지

8단계를 요약하면 첫 단계는 목회자이다. 지역교회는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목회자가 지역교회의 대문과 같고 교회로 가는 길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그 길을 여느냐 닫느냐는 목사에게 달려 있다. 그런 목사들이 지상 대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도록 교회를 도와줘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목회자는 지상 명령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선교로 동원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가야 한다. 지역교회는 선교는 우리 책임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 말은 모두가 선교지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교회의 사역이다. 우리가 너무 선교에 열심이면 교회가 너무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교회가 강해져야 선교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사역이 중요한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선교사가 양성된 일이 없는 교회라면 신약성경을 읽어 보라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선교사가 양성되고 사역이 된다. 교회가 선교사를 양성했다면 다섯 번째 타문화 선교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선교할 계획이 없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그에 맞는 선교사를 어떻게 발굴하고 훈련할 것인가? 를 논의하는 것이 여섯 번째이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면 동역자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 번째가 동역자 계발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단계가 선교지인데 선교지까지 가는 데는 이 모든 단계가 연결되어 있다.

할 선교사는 8단계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단계를 설명하는데 특이한 것은 마지막 8단계인 선교지에 관해서 먼저 설명하였다. 8단계 선교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다. 먼저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가를 큰 종이에 쓰게 하셨다. 그리고 벽에 붙여놓고 서로 공통된 것을 체크하게 하고서 보니 대부분의 생각이 공통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그에 관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세계를 보면 75%가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는 나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는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제자가 생기면 제자들을 훈련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된다. 또한, 제자들이 생기면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 일에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현지인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모습을 선교사는 보고 싶어 것이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이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왜 선교지를 맨 앞에 공부하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교회가 알았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울 것인가? 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 첫 번째는 목회자가 된다. 목회자는 교회의 문이요 길이라고 요약에서 배웠다.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대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느냐는 목회자에게 달려 있는데 많은 목회자가 선교를 꺼리는 이유가 첫째로 선교사를 보내면 가장 좋은 사람을 잃게 된다. 두 번째 선교사를 보내면 비용이 많이 들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지원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로 목회자는 지역사회에 더 다가가 지역주민을 교회에 데려오기를 원한다. 넷째로 목회자의 리더십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우리 교회는 단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어떻게 훈련해야 할지를 모른다. 여섯째 교회에서 교역자는 나 혼자다. 타문화 선교사를 시작할 에너지가 부족하다. 일곱째 주변 목회자들도 선교하고 있지 않다. 여덟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아홉째 나는 선교단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 선교를 위한 설교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들은 성경으로 키워진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님은 우리에게 성경구절을 찾도록 했다. 놀라운 것은 구약에도 매우 많은 선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고 물론 신약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활동을 하고 보니 더 명확해지는 것은 성경의 결론은 선교로 주목받는다. 성경의 결론이 선교라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어떻게 복음과 선교를 빼놓고 설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면 관계상 선교적 구절을 나열할 수 없지만, 선교적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한다. 그 구절을 찾아 읽고도 선교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 성

경의 중심은 복음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목회자가 선교를 빼놓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교를 설교한다면 지역교회는 물음을 가질 것이다. 1. 선교란 무엇인가?, 2. 우리는 왜 선교를 하는가?, 3. 우리는 언제 선교를 해야 하는가?, 4. 우리는 어디에서 선교해야 하는가? 5. 누가 선교해야 하는가?, 6.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할 선교사님이 숙제로 내주셔서 팔자가 정리한 부분을 옮겨 본다.

### 1. 선교란 무엇인가?

마 24:14, 마 16:18. 나는 이 성경 구절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마 28:19-20.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리고 선교는 순종하는 것이다. 마 28:19-20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선교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선교는 계 7:9처럼 어린양 앞에 능히 셀 수 없는 성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선교이다.

### 2. 우리는 왜 선교를 하는가?

요 14:6, 행 4:12, 요 3:16, 요 3:17, 마 28:19, 행 1:8, 롬 10:13, 롬 10:14.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데 주님 밖에는 구원이 없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교한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또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란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리오 말씀처럼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선교한다.

### 3. 우리는 언제 선교를 해야 하나?

요 4:35, 요 4:42, 행 1:7-8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는 즉각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뒤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너희가 믿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셨으니 바로 하면 된다. 내게 성령이 임하면 즉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지금이 될 수 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긴급하게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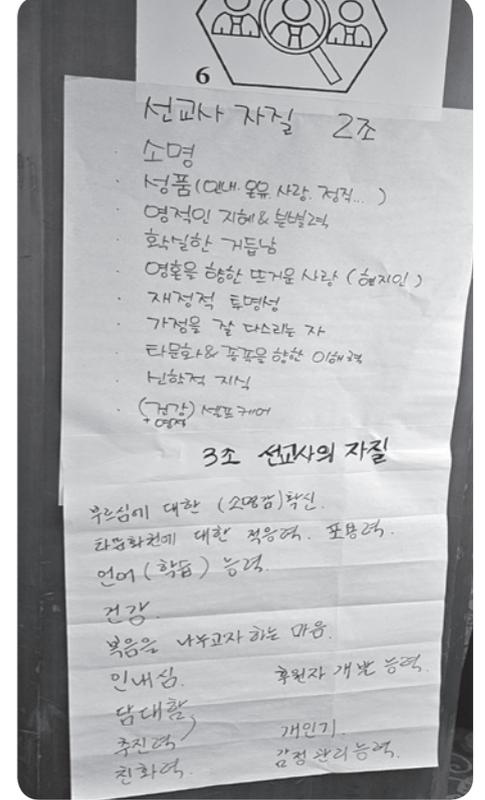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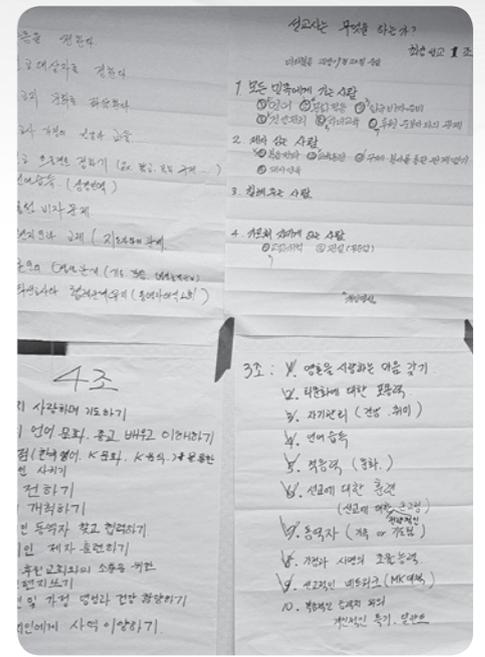
### 4. 우리는 어디에서 선교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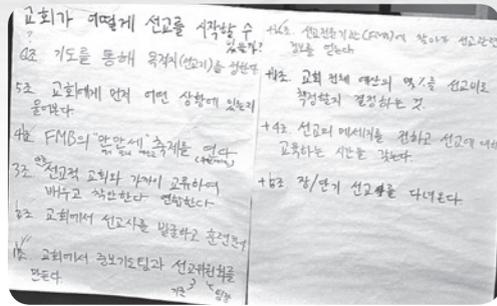
행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며 베드로의 환상이 나온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며 인간을 판단하는 것에 주의를 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부장의 하인들을 맞이하는 그 집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이다. 여기서 말씀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속되거나 더럽다고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 5. 누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행 13:1-3, 행 1:8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한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냈다. 그 이후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가 되었다. 선교사뿐 아니라 누구든지 선교해야 한다.

위와 같이 숙제를 정리해보니 지역교회가 어떻게 동원될 것인가의 그림이 명확해진다. 교회의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성경 활용법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지역교회는 선교로 동원되게 되어있다. 교회의 건강은 건물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다. 교회는 성경의 기준으로 건강해야 한다. 신약교회 모델에 비춰 얼마나 도달해 있는가를 논의해 봐야 한다.





## 건강한 교회의 선교

이런 건강한 교회가 선교할 수 있고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선교의 사명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 4단계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종이에 써 보았다.

물론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에 대해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 교회에는 화목하게 하는 부르심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사역자로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봉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타문화 사역자 즉 선교사로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르심들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교회 사역을 해야 한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사역을 해보지 않고서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없다. 따라서 교회 사역을 해본 경험은 선교사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선교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 사역에서는 개개인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성도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고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 또한 교회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타 문화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도 그 안에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있어야 한다. 한국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 타 문화권에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연습해 봐야 한다. 더 넓혀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가족과 친지와 교회와 문화를 떠나서 다른 문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를 어떤 민족으로 부르시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회도 이런 사람을 추천한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철저히 평가하고 엄선하여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을 보면 안디옥교회는 파송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성경공부를 통해 선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교회에서의 성경공부 속에서 진짜 선교사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 문제씩 만들어 실습을 해 보았다. 성경공부를 만들어보고 실습해 보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선교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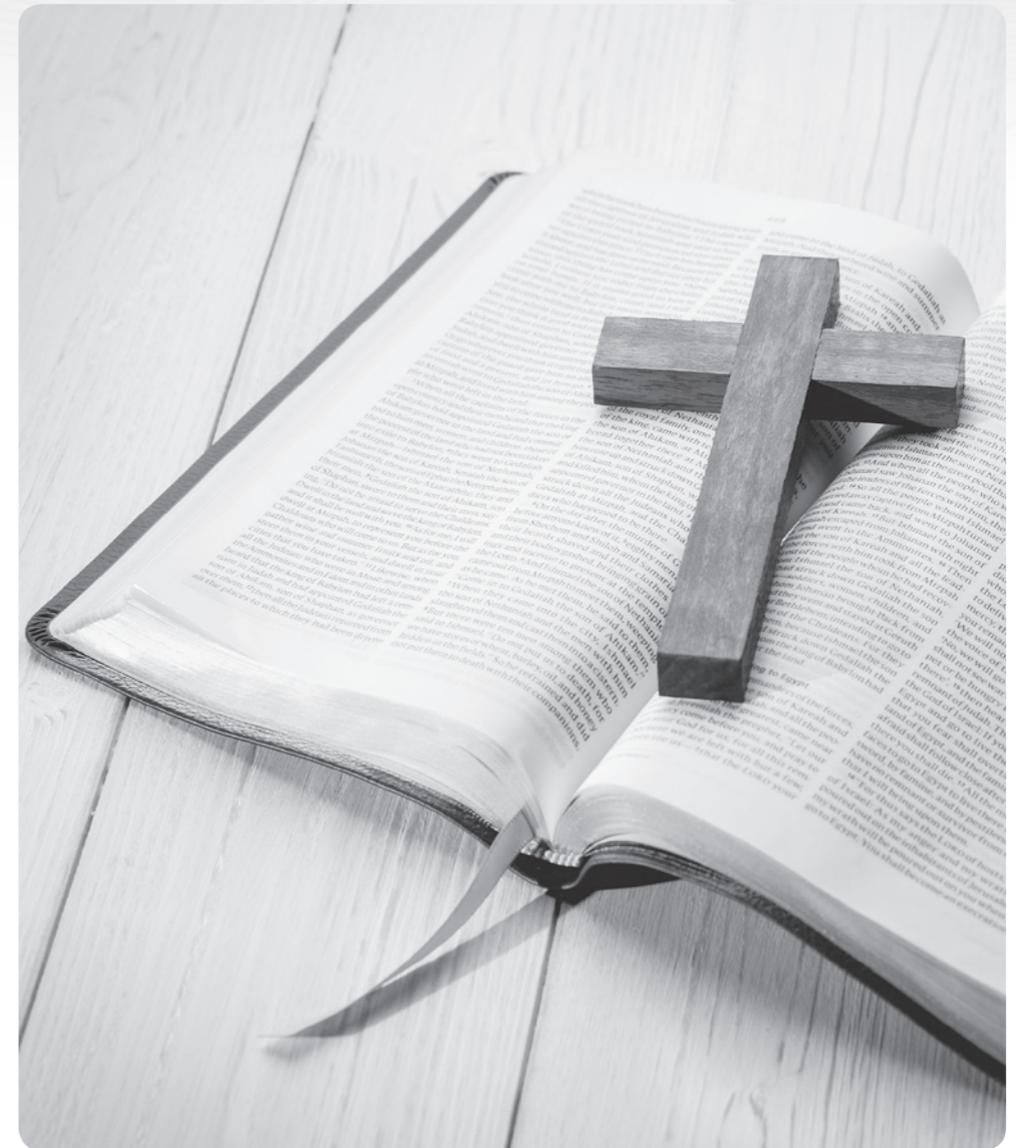
이제 5단계 선교사 양성 부분이다. 4단계에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우고 선교적 성경공부를 통해 부르심을 가르치고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워나갔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가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테이블 별로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써 보았다. 대체로 나온 답을 보면 1. 기도를 통해 목적지(선교지)를 정한다, 2. 교회에 먼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물어본다, 3. FMB의 만만세 선교축제를 연다, 4. 다른 선교적 교회와 교류하여 배우고 연합한다, 5. 교회에서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한다, 6.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과 선교위원회를 만든다, 7. 선교기관(FMB)을 찾아가 선교 관련 정보를 얻는다, 8. 교회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선교비로 책정할지를 결정한다, 9. 선교 메시지를 정하고 선교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다, 10. 장/단기 선교를 다녀온다 등 다채로운 의견들이 쏟아졌지만 10가지로 정리를 해 봤다. 대체로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이었고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 선교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대체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를 시작했으면 이제 선교사를 돌보는 일을 시작한다. 선교사가 필요한 것을 적어본다. 중보기도, 재정, 비자, 생명보험, 은퇴플랜, 거주공간, 교통수단, 자녀교육, 지속적 영성 관리, 고국의 가족들, 고국 음식, 위기상황 교육, 사역기술, 멘토링, 멤버케어, 건강관리 메뉴얼, 의사소통창구, 보안 네트워크, 팀/동역자 등 많이 나온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므로 교회가 도와야 하고 도울 일이 많다.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데 사역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고 깨끗해야 한다. 대개 한국의 선교사들은 사역비와 생활비가 나뉘지 않는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를 전부 사역에 쓰는 것도 옳지 못하다. 선교사가 사역을 잘하면 고국에 있는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예로 선교사평가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로 정체성이다. 믿음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선교사의 소명 확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신자의 삶에 분명히 드러난다. 이 말은 모든 신자가 타문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타문화 선교사로 섬기는

부르심은 주의 깊게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로 선교사의 역량과 자질이다. 능동적 사역이 중요하며 규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규칙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가? 또한, 타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가? 교회에서 요구되는 사역을 잘하는가? 이런 항목으로 선교사를 평가하고 역량과 자격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건강과 건강한 삶을 평가한다.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갖추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선교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삶 또한 건강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실제적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이다. 실제적인 준비는 그 나라 문화에 맞는 사역 연령에 맞는 사역을 잘 준비하는가이다.

할 선교사님은 8년 동안 선교사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선교사 지원서를 읽을 때 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선교사 선발이나 평가를 잘 못했을 때 선교사 개인이나 단체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 조에 선교사를 평가하는 기준을 주셨는데 모슬렘 여성을 위한 여성 산부인과 의사를 찾는 것이었다. 아랍어 학습능력, 적재적소인 환경에서 기꺼이 나누고 신중하게 여성을 제자화하는지, 미국 클리닉의 모든 장비 없이 까다로운 환경에서 장시간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인지, 여성건강에 대한 현지 의사의 기술개발 사역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지역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주어졌다. 우리 조에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산부인과 남자 의사가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의사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파송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선교사와 교회 선교단체 관계가 또한 중요한데 사례연구를 통해 함께 토론하며 선교단체와 선교사, 파송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IMB에서는 28개의 세분화된 주제로 선교사를 평가한다. 선교사는 망치 하나만 가지고 집의 모든 것을 수리하는 일꾼이 아닌 적재적소에 알맞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는 일꾼과 같은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배치되어야 한다.

이 세미나를 듣고 처음에 확신이 없던 마음이 변해서 더 공부해서 이 세미나를 한국의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물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세미나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한다. 구원받은 복음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부르심을 점검하며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세미나여서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았다. 또한, 선교사인 나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신이 났었는데 지금까지 선교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뛰는 가슴이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선교가 성경의 결론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교회가 바뀌는 것은 역시 성경이었다. 교회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많은 수가 모이면 부흥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부흥 말고 기존 성도가 바뀌는 것은 성경이고 그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가르치고 설교할 때 교회가 새로워질 것을 믿는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귀한 세미나를 들었다. 강의를 해주신 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같은조에서 복음을 함께 논의한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내가 동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 교회의 단기선교

### 포항중앙침례교회의 단기선교여행 사례



김종원 목사 (포항중앙침례교회 / 부목사)



포항중앙침례교회가 단기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92년부터입니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에 첫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나갔는데 교회가 직접 선교지에 방문하고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경험하게 되면서 이후로 꾸준하게 필리핀, 네팔, 중국,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많은 곳을 정기적으로 다니며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는 일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교인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질과 시간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참여하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되살아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고 교회 성도들이 다시 사명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이제는 선교사역은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단기선교 사역이 중단되었지만 이번 2024년 1월에 다시 단기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터라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전에 해마다 한 팀씩 나갔던 것을 바꾸어 이번에는 과감하게 6개 팀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FMB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필리핀으로 6개 나라에 팀을 나누어 가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2024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6박 7일)로 잡고 인원을 모집했으며 청소년부터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84명의 신청자

가 나와서 팀을 꾸려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 11월 4일에 WMTC의 이병문 부원장님을 모시고 ‘단기선교 참가자 교육’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단기선교의 의미를 새롭게 배우고 팀워크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할 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선교지의 상황에 맞추어 각 팀별로 선교사님과 소통하며 일정을 조정하며 어린이 사역과 노방전도, 전도집회와 구제사역 및 예배사역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류문화가 크게 불고 인기가 있는 시기여서 KPOP-찬양댄스와 태권무, 부채춤 등을 준비하여 한국을 알리면서도 현지 젊은이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현지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은 넷플릭스의 영향으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콘텐츠가 인기가 많으니 이것도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막상 준비해보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역의 경우, 한글을 알려주는 시간과 비즈공예,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경학교를 열어 이를 매개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도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각 팀마다 현지어로 찬양을 준비하고 드라마와 작은 이벤트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들의 언어로 노래를 준비해 온 것에 대한 현지 성도님들의 감사의 피드백이 꽤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팀워크입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각자가 부르심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사역에 도구로 쓰신다는 부르심을 확인하는 일이 없다면



단순한 해외여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정 중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팀워크가 깨지고 사역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하면서 팀별로 나눔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시고 또 어떤 믿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지를 나누고 잘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파송식 때 나누었던 몇 사람의 간증을 나눕니다.

“저는 국가고시를 합격하면서 목표로 잡고 있던 병원에 지원서를 내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 날짜가 단기선교 일정과 겹치게 되어서 이번에는 아예 갈 수 없겠다고 단정짓고 단기선교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라는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오면서 제가 단기선교를 놓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말씀을 통해 마 2:11 구절을 통하여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 2:11)라는 말씀이 깊이 있게 와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황금의 고백, 유향의 고백, 몰약의 고백으로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맞볼 수 없다는 강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선교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병원에 전화해서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셸모임을 하며 이것에 대한 나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혹시 단기선교 후에 출근하도록 해줄 수 있는데 가능하겠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나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선교 잘 다녀오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24세, 최진실 자매)

“이번에 가족들과 베트남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주일에 목사님께서 단기선교 광고를 하셨습니다. 이미 가족 여행을 가기로 논의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단기선교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통독 하던 중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시 68:5)는 말씀이 꽃혔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왜 이리도 크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주일 단기선교 광고 중 ‘인도네시

아-고아사역’이라는 자막을 보자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단기선교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는 즉시 이것을 깨닫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가족여행을 미루고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먼저 가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선교를 앞두고 갑자기 허리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지병이기도 한지라 갑자기 허리가 아파오니까 단기선교를 못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행 2:25) 이 구절은 허리의 연약함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냐고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비결을 알려주는 답을 동시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만 잘 붙들면 육체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48세, 이윤정 집사)

이렇게 눈물의 간증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1월 24일 저녁예배에 단기선교팀 파송식을 하고 5개 나라 6팀이 현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현지 팀들의 생생한 기도 제목을 매일 업데이트하여 기도실에 공유하며 중보기도를 했고, 또한 현지팀들의 일정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저희가 갔던 모든 팀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서 인도로 간 팀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고 파송한 지 2년이 되어 오랜만에 방문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도 인도의 교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 한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도 파송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저희 팀이 방문하였습니다. 모든 선교사님이 다 귀하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살다가 다른 나라에 파송되어진 경우 이분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 팀들이 방문한 것 자체가 선교사님께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고 귀국할 때 축복송을 나눌 때는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이며 한 교회임을 경험합니다.

일정 내내 주어진 프로그램과 사역을 하면서 저희는 팀워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큐티부터 하고 나눔과 짧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들은 선교사님과 협력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기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교회에서 보고회를 하면서 6개 팀의 피드백은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제 매년 진행하게 될 이 사역을 벌써부터 내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다녀온 후에 삶과 가치관이 달라진 청년들이 많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며 다음에 꼭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면 관계상 보고회를 하면서 나누었던 몇 분의 피드백을 나눕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인도에서 잘 적응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도 교회 성도들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고백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서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한 믿음 아래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체감했고 이 교회의 몸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 또한 인도와 다를 바 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물질, 성공입니다. 인도에는 지금도 깨지지 않는 카스트라는 절대적인 신분제도가 있지만 이제 이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재산과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보면 힌두교 신들보다 더 강력한 우상인 물질과 성공을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 매일 마주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풍요와 번영이라는 우상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런 우상을 거부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38세, 김지민 집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했던 것이 있습니다. 평균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와 80%의 높은 습도를 가진 발리의 환경은 저희 팀을 힘들게 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잠도 충분히 자지 못했고, 더운 날씨에 태권도복과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해야했기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짜증이 나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었습니

다. 저희 팀을 통해 위로받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선교활동을 할 때 왜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대가 없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위로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선교는 분명 일주일이었는데 10년은 성숙해진 느낌이 듭니다.”(27세, 정의찬 형제)

함께 나누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드백이 다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면 이들이 한국에서도 다시 사명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선교를 진행하면서 이 사역을 통해 교회가 얻는 유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단기선교의 경험을 통하여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성경을 통해 배워왔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특별하게 와닿게 됩니다.

둘째로, 단기선교를 통해 현지 선교사와 교류하면서 선교의 마인드가 돈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매주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으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래도 기도할 때마다 피상적인 느낌이었다면 단기선교를 경험한 후에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해지고 뜨겁게 바뀌는 경험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셋째로, 짧은 시간이지만 단기선교 기간을 통해 현지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경험을 갖게 되면서 열방의 영혼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며 이제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 목적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방문하는 일을 함으로써 온전히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 포중침은 2025년에도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태국, 필리핀 총 9개 나라에 가려고 합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는 이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 위해 계속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4차 서울-인천 로잔대회 참석후기

#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 최예문 선교사 (FMB / 필리핀)



제4차 서울-인천 로잔 대회(이하 제 4차 로잔대회)가 지난2024년 9월 22일~28일까지 로잔운동 국제본부 주최와 한국 및 아시아 로잔 위원회 주관으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라는 주제로 인천 송



도 컨벤시아에서 개최 되었다. 로잔대회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래함과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가 주축이 되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된 대회가 시초가 되어 5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장 되었다.<sup>1)</sup> 로잔 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로잔 운동은 다양한 지역, 다양한 주제, 다양한 연령의 지도자들이 지상대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기도하며, 연합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과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다. 또한 로잔 언약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이다.

로잔 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의제와 변화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대회가 열린 뒤 이후에 1989년(필리핀 마닐라), 2010년(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개최 되었다. 제1차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는 미완의 과제인 대위임령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모이기 위해 모였는데 약 150여개국에서 2400명이 함께 모였으며 주제는 “온 땅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Let the earth hear His voice)”였다. 이 때 처음 미전도 종족 집단(UPG)이라는 개념이 랄프 윈터에 의해 소개 되었으며 또한 현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도 알려진 로잔 언약을 발표하였다.<sup>2)</sup> 제2차 로잔대회는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그때 약 170개국에서 3000명이 참석했다. 이때 선교의 초점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닿지 않은 지역을 보여주는 루이스 부시(Louis bush)의 10/40 창이 소개 되었으며 사회적 책임과 전략적 협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면서 800개 이상의 새로운 선교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sup>3)</sup> 그리고 제3차 대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198개국에서 4000명의 지도자가 모였다. 이 때는 도시 선교, 총체적 선교,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 다가서기, 그리고 구전 학습자들 사이에서 복음 전하기의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올해가 로잔대회의 50주년 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처음으로 개최 된 로잔대회이기

1) <https://lausanne.kr/outline/>  
 2) <https://lausanne.org/ko/%eb%a1%9c%ec%9e%94-%ec%9d%b4%ec%95%bc%ea%b8%b0>  
 3) <https://lausanne.org/ko/%eb%a1%9c%ec%9e%94-%ec%9d%b4%ec%95%bc%ea%b8%b0>

때문이다. 그러한 제 4차 로잔대회가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 온 복음의 관문도시인 인천에서 개최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 참가자는 전 세계 교회 및 파라처치 사역, 정부, 정치, 교육, 군사/법 집행, 의료, 비즈니스 및 상업, 산업, 민간 기업, 예술, 미디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과학, 기술, 환대, 선교 단체 및 인도주의 NGO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전 세계 202개국에서 5,394명이 현장 참가 하였고, 온라인(vx)로 총 101개국 2,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후 GAP 트랙들을 제외한 아침과 저녁 세션들은 선교보안을 요하는 내용이 아닌 부분은 온라인 생중계로 161개국 약 3만 5,000여 명이 시청하였다.<sup>4)</sup>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번 제4차 로잔 대회 주제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였는데 Let the Church, Together은 온 교회(하나님의 백성), 하나 됨, 함께 함을 의미하며, Declare and Display는 복음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냄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Christ 는 예수그리스도의 통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의미한다.<sup>5)</sup> 특별히 제4차 로잔 대회를 통해 로잔운동의 4중 비전인 1.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2. 모든 종족과 지역을 위해 제자 삼는 교회, 3. 모든 교회와 사회 부문을 위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 그리고 4.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루는 촉매제가 되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전 세계 교회가 협력을 촉진하여서 2050년에 이르기까지 열방을 제자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형성하는 것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었다.<sup>6)</sup> 대회 기간 동안에는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성령강림’, ‘선교공동체’, ‘핍박과 선교’, ‘일터사역과 세계선교’, ‘섬기는 리더십’, ‘땅끝까지 왕 되신 예수를 전하자’를 요일별 주제로 정하여 아침에는 성경 강해, 주제 강의, 소그룹 토의가 이루어 졌고 오후에는 12개 지역별 모임들과 25개 이슈트랙 모임,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 등이 진행되었다.

**제4차 로잔대회를 참가하며**

로잔대회는 주로 사전 추천된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

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4499>  
 5) <https://lausanne.kr/outline/>  
 6) <https://congress.lausanne.org/ko/>





어 있는데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선별이 엄중하게 이루어졌다. 제4차 로잔대회도 참가자 선발 과정(participant selection process)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선정했는데, 이번에도 다양한 세대에서 선정하였는데 특히 40세 미만의 부상하는 지도자들이 참가하도록 배려하였다. 5000명의 참가자들 중에 5%는 40세 미만의 젊고 부상하는 지도자, 40%는 여성, 40%는 일반 직장인(교회나 사역 기관에서 일차적인 수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로잔 홈페이지에 명시 되어있다.<sup>7)</sup> 필자는 아직 선교 지도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8년차 여성 선교사이지만 만 40세 미만인 39세의 젊은 여성 선교사로서 추가등록 과정에서 선배 선교사님의 추천을 받게 되어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 Collaborate(협업) 세션과 25개의 트랙

제4차 로잔대회는 오후에는 다양한 협업(Collaborate) 세션이 있었는데 복음 전파, 디지털 시대의 사역, 인간됨에 대한 이해, 다중심적 선교사역, 선교와 거룩함, 공동체에서 증인 됨, 사회적 상호교류 등 7개의 큰 항목 안에서 25개의 트랙이 나뉘어져서 협업 세션들이 4일동안 진행되었다.

25개의 트랙들은 다음과 같다 :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새로운 중산층, 다음세대, 이슬람, 세속주의, 최소 복음화 종족, 디지털 시대의 성경,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태, 디지털 시대의 제자도, 디지털 시대의 전도, AI와 트랜스휴머니즘, 성과 성별, 전인적 건강, 다중심적 선교, 다중심 자원의 동원, 정직과 반부패, 통전적 영성 및 선교, 지도자 품성 개발, 이주민, 도시 공동체, 디지털 공동체, 민족주의 및 인종차별, 급진적 정치 그리고

7) <https://lausanne.org/ko/%EC%B0%B8%EA%B0%80%EC%9E%90-%EC%84%A0%EC%A0%95-%EA%B8%B0%EC%A4%80-%EB%B0%8F-%EC%A0%95%EB%B3%B4>

종교적 자유, 창조세계와 취약계층 돌봄,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와 영향.

많은 분들께서 로잔대회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이슈들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필자에게 개인적인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셨었는데 이 25개의 트랙들은 오후에 진행되는 세션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몇 년 동안의 로잔의 리더들은 소통을 통해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하는데 간과한 틈새, 즉, 25개의 틈(GAP)들을 선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 영역들 안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었지 이 트랙 자체가 복음을 대신하거나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25개의 다양한GAP 트랙들 중에서 필자는 다음세대의 트랙 : 선교적 전략에 참석하였다. 필자가 함께했던 그룹은 계획을 했던 그룹이 아니라 첫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룹이었는데 필리핀 사역자들이 다수로 이루어진 테이블 그룹에 우연히 함께 앉게 되어 필리핀 다음세대들에 대한 선교적 전략들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세션 테이블 또한 4일동안 진행되는 트랙 세션동안 각 테이블에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다른 사람들과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똑같은 멤버로 그룹안에서 함께 듣기, 상상하기, 창조하기, 소통하기의 총 4단계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과정으로 협업이 진행되었다.<sup>8)</sup>

### 선택 트랙과 관심그룹

또한 9월 23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금요일까지, 오후에는 참가자들이 추가적으로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트랙과 관심 그룹들이 있었는데, 대회기간 중 모이고 싶은 관심 그룹을 새롭게 추가하고 싶으면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선교사 자녀 출신의 2세대 선교로서 전세계 성인 MK 출신 사역자들과 네트워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MK 네트워크 그룹을 신청해서 모임을 허가 받게 되어 모임의 좌장(Facilitator)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 시간동안 로잔대회를 봉사자들로 섬기던 20-30대 한국인 MK들을 포함하여 20-70대의 다양한 연령의 전세계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국가들을 섬기고 있는 35명의 국제 MK 출신 지도자들과 교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기쁜 시간이었다.

8) <https://congress.lausanne.org/wp-content/uploads/2024/03/KO-Congress-Executive-Summary-of-Afternoon-Programme-A4.pdf>

## 로잔 대회의 테이블

로잔 대회의 오전 세션과 저녁 세션들은 대회기간동안 지정된 테이블에 앉게 되어 있는데 한 테이블에는 대략 6명이 대회 기간 내내 같은 테이블 그룹으로 앉아서 모든 오전 세션과 저녁 세션들을 함께 듣게 되어있다. 또한 매 세션마다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각 테이블 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소그룹 토의를 활발히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 각 테이블에는 대화를 이끄는 테이블 리더들이 지정 되는데 필자가 함께 한 E-22테이블은 영어권 언어 테이블로서 미국, 영국, 네팔, 인도,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한국, 총 6국가 출신 인원들이 함께하였으며 필자는 대회기간동안 테이블 리더로 섬겼다. E-22테이블 멤버들은 국제적인 복음주의 학생운동 연합단체인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 (IFES)의 국제대표인 T, 시카고 Moody Church의 담임목사인 M, 인도의 선교단체인 Bible Faith Mission India(BFMI)대표인 P, 네팔의 어린이 사역인 국제 AWANA의 남아시아 디렉터인 G, 분쟁지역에서 국제 적십자 소속의 사로 활동하고 있는 L, 그리고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필자였다. 앞에 인물들의 호칭을 굳이 붙이지 않은 이유는 로잔 대회기간 동안에 이 테이블 그룹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각자 개인의 나이와 국가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서만 테이블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로잔대회가 가진 매력과 특별함인 것 같다.

## 상호작용과 협력의 강조

개인적으로 제4차 로잔대회를 참가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대회가 단순히 대회만 참가해서 메인 메시지를 듣고 끝내는 선교대회가 아니라 대회 전, 대회기간, 그리고 대회 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방법들로 협력과 상호작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었다. 대회를 준비하는 자들이나 봉사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대회 전부터 여러 사전 줌 미팅 오리엔테이션과 교육들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에게 대회를 기대하게 하며 미리 준비시켰다. 실제로 WhatsApp, 카카오톡, 그리고 후에 런칭 된 로잔 어플을 통해 대회 전에도 서로 교류하기를 적극 권장한 것 뿐만이 아니라 서로 대회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실제적 가이드라인들을 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던 것을 보며 참여하는 만큼, 준비하는 것 만큼 얻을 수 있는 대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번 대회 기간 강조가 된 단어는 협력(Collaboration)이었다. 대회 기간동안 내내 대화를



참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협력이 지속되기를 독려했다. 대회 마지막 날 오전에는 제4차 로잔대회 협업 행동 서약식이 있었는데, 각 참가자들이 서약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 모든 참석자들에게 서약서를 나눠줬는데 서약서에는 각 참가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교회와 함께 하고, 서로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앞으로도 시너지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협업 행동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개인의 이름을 싸인 하도록 하는 빈칸이 있었다. 그냥 말로서 하는 서약,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싸인을 하고(각자 개인이 소지하도록 함) 여러 증인들이 싸인하는 칸까지 마련되어 있어 같은 테이블 멤버들끼리 서로 증인이 되어 싸인을 했던 시간이 굉장히 뜻 깊었다.

## 다음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로잔운동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 선교계에서 대두되는 메인 이슈들 중 하나는 선교계승과 다음세대 선교사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2024년 4월에는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주최로 “다음세대 선교 동원과 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선교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2세 선교사로서 필자는 특히 다음세대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영역에서 큰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제4차 로잔대회를 참가하면서 로잔대회는 현재에 리더를 키우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미 다음세대를 준비시켜 놓았던 것을 보게 되며 큰 도전을 받았다. 이미 1987년부터 로잔운동은 청년 리더 모임(Younger Leaders Gathering, YLG)을 형성해, 전 세계 차세대 리더를 발견하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한 뒤 청년 리더들이 서로 연결하고 기존의 국제 리더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지도력의 발전을 촉진 시켰다.<sup>9)</sup> 실제로 이번 제4차 로잔대회는 이번 대회

9) <https://lausanne.org/ko/%EB%A1%9C%EC%9E%94%EC%9A%B4%EB%8F%99%EC%9D%98-%EC%9C%A0%EC%82%B0>

가 있기 8년 전에 이미 40세 미만의 젊은 기독교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제3회 Young Lausanne Gathering(이하 YLG)이 2016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였고 이번 대회에는 그때 양성한 리더들이 실제로 사회자 또는 강연자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금 이미 앞의 10년을 준비할 다음세대 리더들을 연결하고 세우기 위해 2026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LG2026를 개최할 것을 대회 기간중에 알리며 YLG 대회 리더십 팀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실제로 이번 대회 기간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과 도전을 받은 메세지는 월요일 “성령강림” 주제로 강의를 했던 사라 브뤼엘(Sarah Bruel) 선교사의 메세지였는데 그녀 또한 브라질 출신의 이탈리아 선교사로서 YLG 출신이다. 필자는 한국에 잇 선교세대가, 다음세대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만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잇 선교세대의 축복과 지지를 받고 다음세대 선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협업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 한국의 열두 돌, 그리고 미래의 선교

제4차 로잔대회 기간 중 목요일 저녁에 한국 선교 140년의 역사를 여호수아 4장 4-7절에 나오는 길갈의 열 두개의 돌로 상징하여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은혜에 감사하는 순서가 있었다. 제1막 부흥에서 2막, 선교지에서 선교국으로, 그리고 마지막 3막은 길 위에 한국 교회라는 주제로 나눠져 소개 되었는데 그 중 90년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이야기할 때 선교사이신 필자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함께 테이블에 있었던 멤버들이 한국이 가난 했을 때도 선교사를 보냈고 자생적으로 선교를 이뤄냈던 것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말할 때 한국 교회와 선교에 대해 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선교의 화려함과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대면하고 있는 기독교의 약화되는 현실을 진솔하게 전세계 기독교 리더들과 나눈 것에 굉장히 놀라면서 감동을 받았다.

### 전환기의 로잔대회

사실 필자는 로잔대회에 처음 참가했기 때문에 이전 로잔대회와 비교할 수 없지만, 듣기로는 이번 대회만큼 서구권 지도자들 중심이 아닌 다양한 비서구권 지도자들 중심으로 진행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강연자로 서는 성별 비율이 남녀가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었으며 여러 세대의 강연자들이 강단에 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느낌은 그러한 여러 세대의 강연자들과 사회자들 또한 다양한 국가와 인종이었으나 대부분은 실제 자신의 모국에서 나고 자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보다는 웬지 서구권으로 이민을 갔거나 유학을 가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제4차 로잔대회는 세계 교회가 서구 중심에서 비서구를 포함한 전 세계의 참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환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의 소통과 문화, 선교와 신학적 경험과 생각들이 달라 혼란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마무리하며

20대 초의 미국의 대학생 시절부터 30대 초반의 한국에서의 신학 대학원 시절, 그리고 30대 중반에 장기 선교사 훈련에서 선교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매번 듣고 배웠던 로잔대회인데 40대를 앞두고 있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 모국을 방문해 직접 제4차 로잔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뻐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정말 큰 축복과 특권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관련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이 4차 대회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 많은 후배 한인 MK들이 제4차 로잔대회를 자원 봉사자들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국제적 감각과 언어의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대회 안에서 각 분야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귀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다음에는 YLG참석자로, 후에는 제5차 대회에 지도자로 참가하는 모습을 소망한다. 또한 이 지면에는 다루지 못했지만 동성애에 관련된 이슈와 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선언문<sup>10)</sup>과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sup>11)</sup>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10) <https://lausanne.org/ko/statement/%ec%84%9c%ec%9a%b8-%ec%84%a0%ec%96%b8>

11) <https://lausanne.org/ko/report>

## 선교축제 만만세로 이루어가는 “함께 하는 선교”

| 김석기 선교사 (FMB / C국, 국내동원사역)

### 들어가며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FMB: Foreign Mission Board)는 2023년 2월부터 선교축제 만만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10여년 전부터 지속해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FMB가 이미 직면하고 있는 인적, 물질적 도전에 돌파구



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함께 지락을 모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sup>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며 일정한 틀과 인력을 갖추게 되었고, 보다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요령도 체득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날아가는 새도 가끔은 가지에 앉는 것과 같이 2025년의 만만세를 계획하기 전에 그간의 행적과 주변을 돌아보며 어떻게 망대를 세워야 할지,<sup>2)</sup> 또 다른 지락을 구할 시점이 된 것 같다.

### 함께하는 선교의 필요성과 선교축제 만만세

#### 팬데믹 이후 절박한 재정적 필요

COVID-19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선교사들의 사역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를 연구, 발표한 황이브라힘 선교사는 열세가 지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선교후원자 및 후원교회가 줄어들어 후원금이 감소하였다고 언급하였다.<sup>3)</sup>

이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교사역은 줄어들었다. 어떤 이는 환율로 인한 사역비 감소와 프로그램의 참석 인원이 줄어들어 사역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후원교회의 헌금이 상당히 줄고 후원금이 반으로 줄어들음으로 인해 사역이 축소되었다고 하였다.<sup>4)</sup>

생활상 어려움의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생활상 어려움의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경제적 어려움	124	57.4%	57.4%	안전상 어려움	8	3.7%	5.0%	
자녀교육의 어려움	11	5.1%	6.9%	어려움 느끼지 않음	21	9.7%	13.1%	
건강상 어려움	235	16.2%	21.9%	기타	17	7.9%	10.6%	
전체						216	100%	135.0%

COVID-19 사태 이전에도 FMB 선교사들의 재정부족 문제는 이미 절박한 현실이었다. 이를 연구 발제한 오선택 선교사는 재정부족 선교사를 월평균 후원금이 가정일 경우 150만원 이하, 싱글인 경우 80만원 이하인 선교사로 정의하고, FMB 선교사 중, 재정부족 선교사는 100여 가정(25%가량)일 것이라고 추산했다.<sup>5)</sup>

1)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락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15:22

2)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눅 14:28

3) Missio Dei, Vol.85 p.22, 202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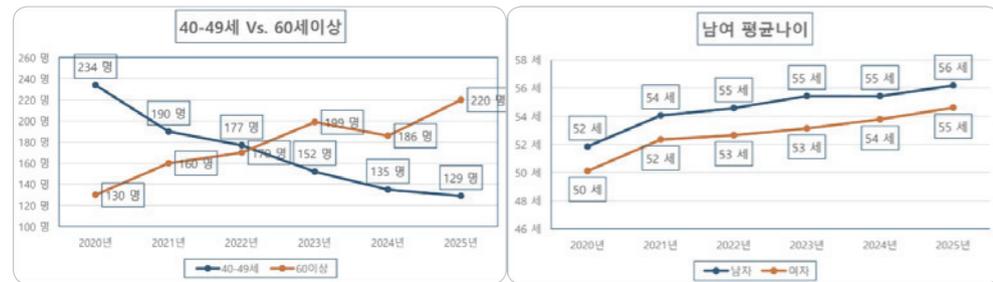
4) Missio Dei, Vol.85 p.23

5) Missio Dei, Vol.82 p. 26-27 2022, 06

2024년 현재에도 FMB 선교사는 61개국에서 721명의 선교사(324 가정, 61 독신, 12 인턴)가 열방 곳곳에서 팔복할만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선교사 한 가정의 월평균 후원액은 230-240만원, 2023년 이후 파송된 장단기선교사의 월평균 모금액은 140만원, 인턴선교사의 월평균 모금액은 9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sup>6)</sup> 이 재정으로 생활과 사역을 모두 감당하고 있다.

### FMB 선교사의 노령화에 대한 하나의 대책, 인턴선교사 제도

2024년 현재, FMB 선교사의 평균 연령은 57세이다. 아래의 자체 분석자료가 보여 주듯이 FMB 선교사는 급격히 노령화 되고 있다. 이것이 FMB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추세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시점에 장기선교사와 함께 1년 정도의 선교지 경험을 하며 소명을 확인하게 되는 인턴선교사는 평균 연령이 27세이다. FMB는 2021년부터 20명을 훈련, 15명을 파송할 수 있었다. 인턴제도가 아직 초기라 그들 중 얼마나 장기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분명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의미 있는 선교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선교사 노령화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함께 하는 선교에 대한 합의

2022년 5월, FMB 3대 회장 주민호 선교사와, 이사회 그리고 FMB 선교사들은 “Vision 2030”을 선포하고 “급변하는 선교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역구조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2030년까지 “함께 하는 선교”의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창출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함께 하는 선교”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교회와의 소통과 협력이라고 명시하였다.<sup>7)</sup>

또한 최종과업으로서 1) 선교 현지에 500개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이를 수행할

6) 2024년 10월 FMB 재정부 제공

7) Vision2030 선포식: 2022년 5월 31일, 장소: 더크로스처지



2) 600 유닛의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며,<sup>8)</sup>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 침례교회의 50%가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며,<sup>9)</sup> 1억원을 헌금하는 챔피언 교회를 열두 교회 개발하고, 20,000명의 선교후원자(FMB Family 멤버)를 확보할 것을 결정하였다.<sup>10)</sup>

그리고 한달 후, 발간된 Missio Dei 82권에서 오선택 선교사는 “만성 재정 부족 선교사들을 위한 재정 모금 대책”이라는 소논문에서 최원진 선교학 교수의 의견을 전하며 “FMB 차원에서 재정모금 전략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미션펀드를 조성하여 신입 선교사의 경우 전체 선교비의 10% 가량을 본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1)</sup>

### 선교축제 만만세의 진행 상황

이와 같은 맥락과, 재정적 필요 그리고 공감대 위에 탄생한 것이 선교축제 “만만세”이다. 만만세는 “만명이 만원 드려 세계선교”에 동참하자는 것으로, “함께 하는 선교”의 실천적 방안이다. 또한 선교 현지에 500개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600 유닛의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동력이다.

또한 만만세 선교축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10:42)는 말씀에 근거하여 세계선교에 함께 하는 후원자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8) 일반 100, 인턴 및 황금기 300, 현자인 200

9) 3,500개의 침례교회 중 2,760여 교회는 아직도 해외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Missio Dei, Vol.83 p.4 2022. 11

10) Missio Dei, Vol.82 p.8, 2022.06

11) Missio Dei, Vol.82 p.31

### 선교축제 만만세의 특징

#### 1) 일체 경비, FMB 전액 지원

만만세 선교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FMB가 전액 지원한다. 교회는 FMB에 내어줄 시간과 장소만 결정하면 된다. 몇 번의 예배, 몇 개의 특강이든 모든 강사비를 FMB가 부담한다. 또한 선교지 음식 체험, 선교지 복장 포토제닉에 따른 시상도 필요한 모든 재정도 FMB가 부담한다. 축제 기간의 숙박비와 식사비 또한 FMB가 부담한다. 그뿐 아니라, 본 축제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는 교회의 담임목사님 부부와 사역자들, 선교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 또한 FMB가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FMB는 지금까지 지역교회로부터 언제나 받기만 하는 존재이었기에, FMB가 이렇게 한번이라도 지역교회를 섬기며,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 교회 맞춤형 기획

선교축제 만만세는 축제를 유치하는 교회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예를 들어, 선교지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교회 마당에서 불을 피울 수 있다면 양꼬치 숯불구이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히 디저트류를 시식할 수도 있다. 선교지 복장을 체험하는 경우에도 마땅한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아쉽지만 생략할 수 있고, 여건이 되면 포토제닉을 선별하여 시상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등 몇 개의 그룹별 포토제닉을 선정하여 FMB가 기프트콘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한주간 전체를 선교주간으로 기획하고 매일의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여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주일의 각 교육부서의 예배 그리고 주일예배



까지 선교축제 만만세로 진행할 수도 있고, 금요일기도회로 시작하여 선교주일까지, 또는 주일 하루의 선교주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게다가 규모가 적은 교회들은 두세교회가 연합으로 할 수도 있다.

#### 3)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교회마다 연령구성이 다를 수 있다.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선교로 부르마블”을, 평균 연령이 70대인 교회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선교잔치 한마당”을 진행할 수도 있다. 선교사는 현지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특화된 사람들만큼 선교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 장점이 발휘되는 것이다.

### 타교단의 사례

만만세 선교축제와 유사한 선교동원의 사례들은 다른 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 Global Mission Society)<sup>12)</sup>

GMS는 450 유닛, 2,550명의 선교사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고, 12,000개 교회의 약 30%인 3,000여개 교회가 세계선교에 동역하고 있다. 그중 선교사 재정의 50-60%인 150만원 상당을 후원하는 주파송교회는 600여개 교회에 이른다.

GMS의 선교동원은 “만만만 선교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만개의 교회, 만명의 성도가 만원씩 후원하자”는 모토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말 현재, 연 1억 2천만원(월 1,000만원) 상당이 모금되고 있다. GMS의 목표액은 연 24억, 월 2억이라고 한다.

만만만 기금의 사용용도는 분명하다. 즉, 위기관리기금 외의 선교사 복지와 긴급지원(사고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 건강상의 위기, COVID-19과 같은 비상사)과 재정적 위기를 당한 선교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MK장학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선교주일에는 헌신예배를 드리며 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이 만만만 선교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후원을 독려한다. 후원방식은 모금대행사역 MissionFund를 통하고 있다. GMS는 후원자들에게 별도의 후속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12) 전철영 GMS 전 선교사무총장 인터뷰, 2024년 9월 3일, 14시, 스타벅스 용인시청DT점

2)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 Kosin Presbyterian Mission)<sup>13)</sup>

KPM은 56개국의 선교현장에서 494명(240개 가정)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으며, 2,200개 교회(45만~50만 성도, 그중 1,000개 교회는 미자립교회)중 1,000여개 미만의 교회가 세계 선교에 동역하고 있다.

KPM의 선교동원은 2012년부터 프로젝트 2030의 일환으로 선교축제를 줄여 “선축”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월 5,000원을 후원하는 1만명의 KPM 패밀리 세우기 운동이다. 2024년말 현재 7,000명의 KPM 패밀리가 세워졌고, 연 4억, 월 3,000만 원 이상이 모금되고 있다.

FMB 만만세 선교축제 개최 현황

회차	기간	교회명
1	2023. 02. 05	창원침례교회
2	2023. 05. 28	동상제일교회
3	2023. 06. 25	포항중앙침례교회
4	2023. 10. 29	천안, 천안비전교회
5	2023. 12. 30	세종, 늘사랑교회
6	2024. 03. 11~17	대전, 늘사랑교회
7	2024. 04. 07	방주교회, 우림교회 연합
8	2024. 05. 26	익산, 행복한교회
9	2024. 06. 16	서울, 가산중앙교회
10	2024. 06. 30	문경, 동로면 교회 연합 (동로교회, 수평교회, 생달교회)
11	2024. 07. 02	대전, 오병이어교회
12	2024. 09. 30	오산, 산길중앙교회
13	2024. 10. 14~20	광주, 새밭교회
	총 헌신자수	1,237 명
	월 약정금액	14,290,000 원

만만세 선교헌금 재정 현황

만만세로 모금된 헌금으로 2023년 3월, 인턴선교사들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 7월, WMTC 32기 장단기 선교사부터는 가정당 3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는 20개 지부, 지부장에게 활동비로 10만원을, 2024년 3월부터는 한인 디아스포라 훈련을 받고 FMB로 허입된 선교사들에게 가정당 10만원을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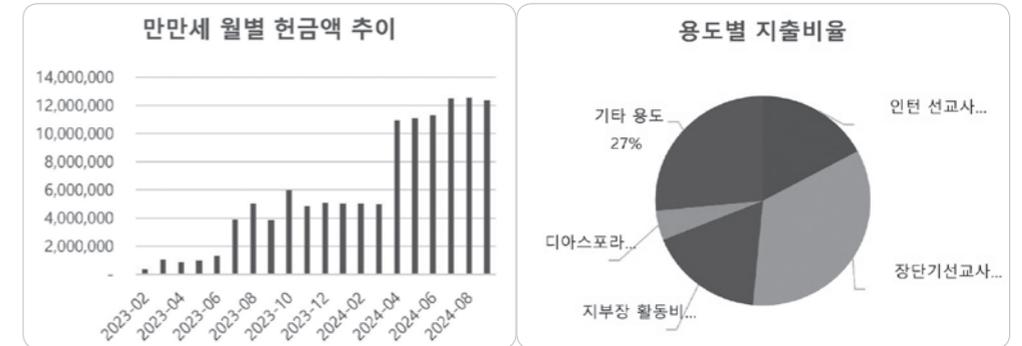
13) 강하동 선교사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동원홍보국장) 인터뷰, 2024년 10년 2일, 14시, KPM

하기 시작하였다.

	만만세 헌금 누적 수입(원)	만만세 헌금 용도별 월별 지출								
		인턴 선교사		장단기 선교사		지부장활동비		디아스포라		
		누적 지원액(원)	누적 인원	누적 지원액(원)	누적 인원	누적 지원액(원)	누적 인원	누적 지원액(원)	누적 인원	
2023/09 현재	119,005,000	17,700,000	118	35,400,000	118	18,000,000	180	4,700,000	47	27,357,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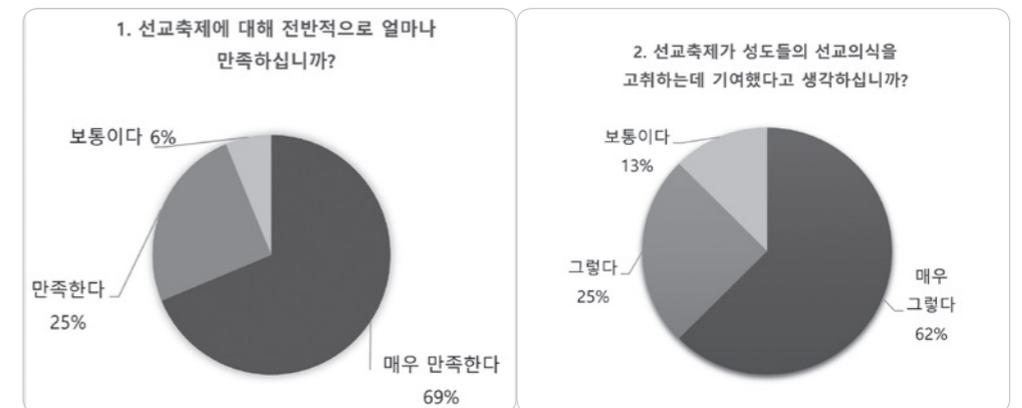
만만세 선교축제에 대한 교회의 평가<sup>14)</sup>

2023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 10월 현재까지 만만세 선교축제가 총 13회 진행



된 시점에 만만세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대상 : 만만세 선교축제를 유치한 교회 담임목사 16명



14) 설문기간: 2024-10-01 ~ 10-24, 구글폼

설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보면, 여러 항목에 대하여 답임목회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심으로 선교축제 만만세의 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또한 CMS 약정을 성도들에게 제안하기는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선교축제 만만세가 성도들의 선교의식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답임목회자들이 FMB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선교의식을 높여갈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다음의 표에 답을 수는 없었던 내용으로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섬겨주어 감사하다, 섬기는 선교사들의 연합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등의 의견들도 있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3. 인턴, 초임선교사의 재정적 필요를 섬기려는 취지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12												
	동의한다	2												
	보통이다	2												
4. 특강의 주제 선정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8												
	그렇다	8												
5. 선교시 복장, 음식 체험은 계속해도 좋습니까?	매우 그렇다	13												
	그렇다	3												
6. CMS 후원약정은 계속 되어야 합니까?	매우 그렇다	6												
	그렇다	6												
	보통이다	1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1												
7. 선교축제를 다른 목회자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11												
	그렇다	5												
8. 후속 프로그램 "열방기도회" 또는 "선교학교"에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7												
	보통이다	5												
	그렇지 않다	1												
9. 선교축제가 목회자 개인적으로, 선교 또는 선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의 기회가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7												
	그렇다	6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10. 선교축제 후, FMB와의 협력관계를 더 긴밀히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9												
	그렇다	4												
	보통이다	3												

11. 초등부, 청소년부에서 선교사들이 메시지를 전한 경우, 그 내용과 전달방식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6												
	그렇다	8												
	보통이다	2												

### 만만세 헌금으로 지원 받는 선교사들의 감동

“만만세 선교비 지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원된 금액은 전체 필요 선교비 중 몇 %를 차지하십니까?”라는 질의에 선교사들은 이렇게 답하였다.

#### • 정혜성/이자인/일본/장기

“... 만만세 선교비 지원은 저에게 선교지로 나가기 전, 재정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sign)이었습니다.” / 전체 필요 선교비 중 8%

#### • 김현/김윤주/체코/장기

“우리에게 만만세 선교비 지원은 "다음번 턱걸이를 위한 디딤판과 같습니다. 본부의 지속되는 지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용기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FMB라는 소속감을 고양시켜줍니다.” / 5~6%

#### • 김현철/김윤주/인도네시아/장기

“만만세 선교비 지원은 사회 초년생에게 주는 아버지의 쌈짓돈입니다. 사회에 처음 나온 이들은 회사 일도 익숙하지 않고 봉급도 많지 않아 하루 하루가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아들에게 찾아와 ‘힘든 것 없니? 처음엔 다 그렇단다. 조금만 견디면 좋아질거야. 힘내. 아빠가 응원한다’ 하며 건네는 용돈과 같습니다. ...” / 15%

#### • 임마누엘/김다혜/필리핀/장기

“만만세 선교비 지원은 저희 가정에게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저희 가정도 경험할 수 있어서 큰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 12%

#### • 김아블로/C국/장기

“홀로 광야에 내보내진 것 같은 나에게, 본부의 만만세 헌금은, 잊분의 시선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공급을 체험하며, 이름 모를 수많은 후원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힘으로 전달됩니다.” / 18%

• 이대철/정정란/타키/장기

“현장에서 침례교단 파송선교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해줍니다. 그 정체성은 더욱 책임 있는 삶으로 우리 부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 10%

• 권찬민/인턴 3기

“만만세 선교비 지원은 나에게 나 홀로 하는 선교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과 또 교단이 함께 하는 선교임을 발견하게 해주어, 외로운 선교의 길에 큰 힘입니다.” / 2.5%



• 박슬희/인턴 4기

“인턴으로서 첫 선교지이고,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만만세 선교비 지원은 본부와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동역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 선교지의 영혼의 소중함을 함께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을 통해 실제로 사역과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12%

나가며

선교축제 만만세는 추진된 지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역 선교사의 노령화, 후원교회들의 고전(股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대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에 따라, 후원교회들이 지역사회 구령의 소명과 함께, 강력한 선교동력을 유지하고, 선교사는 기꺼이 값을 지불하여, 충성되어 사역하고, FMB는 투명한 채널이 되어준다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 분명하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선교”로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25:21)

# 2024 제6회 FMB 선교포럼



| 명유정 간사 (FMB)

매년 가을마다 진행되는 FMB(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선교포럼이 어느덧 6회를 맞이하였다. FMB소속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10월 28~29일 진행된 2024년 선교포럼에는 100여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FMB의 포럼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변화하는 세계선교의 흐름속에 해외선교회는 침례교단의 지역교회들과 ‘함께하는 선교’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더욱 애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4년 선교포럼의 주제를 ‘침례교 선교? 함께하는 선교!’로 정하였다. 1박 2일의 일정동안 FMB의 협력선교 사역과 통일선교, 국내 탈북민 사역 등을 주제로 특강과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FMB의 이사장인 문기태 목사(창원교회)는 환영사를 통하여 “선교 포럼이 회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선교적 자원을 일으키는 모임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책임이 있으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그날까지 선교를 배우고, 선교에 헌신하며, 또 선교를 바르게 지원하도록 이끌어 주는 FMB 선교 포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 I. FMB 사역 소개

### 1. FMB의 해외사역을 위한 조직-문승호 선교사(FMB 국제총무)

1) 권역 : 전체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한다. 동북아시아, 동서남아시아, 중동중앙아시아,

- 아, 연합권역으로 각 권역별 담당 간사가 해당권역 선교사들의 행정지원을 한다.
- 2) 지부 : FMB는 2024년 현재 61개국에서 724명이 사역하고 있다. 724명의 선교사는 20개 지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부는 FMB의 핵심적이며 중요한 기본 조직이다. 실제적인 사역과 행정 관리 및 멤버케어는 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3) 지부모임 혹은 지부총회 : 지부모임은 영성유지, 사역전략논의 및 멤버케어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연 1회 진행하지만 한 지부에 여러국가가 속해 있는 경우에는 2~3년에 1회씩 지부총회를 실시하기도 한다.
- 4) 지부 방문 사역 : 전체 선교사들이 개인이 아닌 침례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기 위해 지역교회 및 본부와 긴밀한 소통을 하도록 안내하며, 선교사의 책무에 대해 강조한다. 그리고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멤버케어, 팀사역, 협력사역을 강조한다.
- 5) 지부장 역할 증대 : 매월 온라인으로 전체 지부장 회의를 진행하며, 지부장 연례 회의를 통해 지부장의 리더십을 개발한다.
- 6) 남침례교 국제선교회(IMB)와의 협력을 증대한다.
- 7) 2025년 해외 사역의 방향성 : 선교사 개인이나 개별 지역교회의 요구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FMB의 선교 목표를 세운다. 더불어 미전도종족 및 미전도미접촉 종족에 집중한다. 신임선교사, 단기선교사, 인턴선교사를 파송할 때 해외선교회의 목표를 적용한다.

## 2. 동원사역부-정태호 팀장

- 1)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열방기도회 : 정기적으로 선교사의 메시지와 선교지 현황, 기도 제목 등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이다. 한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현장의 소식을 듣기도 한다.



- 2) IN2MISSION(인투미션) :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학교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3) 만만세 선교축제 : 지역교회의 선교주일 또는 선교주간을 FMB가 담당한다.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한다.
- 4) 인턴십 프로그램 : 침례교단의 2030청년들이 FMB 장기 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선교지 현장에 인턴 선교사로 파송되어, 선교를 배우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 3. FMB 행정-신갈렙 총무(행정총괄)

#### 1) 본부 구조

- 멀티 리더십 : 회장, 행정 총괄 총무, 국제 사역 총무
- 61개국, 20개 지부
- 부설기관 : WMTC, SRDC, N2KM

#### 2) 행정 업무

- 선교사 관리 및 지원 : 파송, 위기관리, 연장교육 등
- 투명한 재정모금 및 보고체계
- 업무처리 효율화 : Teams 프로그램이용

#### 3) 선교사 자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고3 대상으로 리엔트리 프로그램, 성탄 선물, 입학축하금 및 본부 장학금 지급, MK캠프, 해외 MK 캠프, 캠퍼스 심방, 위기상담 등

#### 4) 지역교회 관련 중점과제

- 지역교회의 선교참여 극대화: 선교축제, 선교세미나, 선교교육 등의 선교적 지원 강화
- 지방회와 선교사 연결 프로그램 강화: 120개 지방회 중 년 5개 지방회 선교참여 방안 모색, 지방회와 선교사 매칭 시스템 도입, 지방회 별 선교 세미나, 선교포럼 활성화
- 파송교회 세분화와 역할 증대 : 파송교회를 제1, 제2, 제3 파송교회(협력파송)로 나누고, 파송교회의 역할 세분화
- 파송교회 목회자 협의회 신설

#### 5) 현장 선교사 관련 중점과제

- 현장 중심 체제 수립 및 권역교회 설치
- 팀 사역 중심과 현지 교회와 협력
- 디아스포라 선교 역량 강화 및 전문화

- 선교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선교 전략 추구(4차 산업혁명, IT)



### 4. WMTC - 이병문 부원장

- 1) 1994년 설립, 총 62회의 선교훈련 / 1246명 수료
- 2) 사명 :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선교사훈련과 선교교육
- 3) 2024년 사역 : 5기 디아스포라선교사 훈련, 34기 신입선교사 훈련, 일본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MUT-Pro, MUT-Senior, 인투미션3 선교위원과정, 인투미션1 웨비나 4회, 인투미션2 선교학개론, 중앙아시아 선교훈련센터 설립 컨설팅, WMTC 30주년 감사예배
- 4) 2025년 계획 : 35기 신입선교사 훈련, MUT-Pro, MUT-Senior, 인투미션, 단기선교여행 인솔자 교육, 선교지 지도자 훈련(교회 위탁훈련)
- 5) 재정의 대부분은 지역교회들의 후원으로 채워짐.

## II. 현대 선교의 키워드 - 이금주 선교사

현대 선교의 화두는 '협력(Collaboration)'이다. 우리는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효과적인 협력 선교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의 목표가 명확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서로간의 소통과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선교사들은 개인사역 중심의 선교,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경험, 급한성격 등의 이유로 협력사역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침례교는 여러 협력 사역의 모범사례들을 바탕으로 더욱 함께 해야 한다. 개인주의 선교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협력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III. 통일선교협의회 사역소개 - 육근원 목사(세종시민교회 담임, 통일선교협의회 사무총장)

북한을 떠난 성도들은 남한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형성하여 북한 및 통일 선교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통일선교협의회는 발족 이후에 가장 먼저 기도운동을 일으켰으며, 통일선교포럼을 통해 침례교단의 통일 선교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침례교단 내에 최근 탈북민의 정착과 통일 세대 양성, 정서적인 안정과 한국에서의 정착,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통일 세대를 섬기는 사역의 현상이 있다. 일명 '우물' 프로젝트인데 짧은 기간임에도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통일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통일선교협의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훈련원 운영, 성경적 통일 운동의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

#### IV. 함께하는 선교의 중요성 : FMB의 협동선교(KCP)를 중심으로-안희열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선교는 단독으로 후원하는 것보다 여러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선교사 멤버케어와 관리를 위해서도 함께하는 선교가 필요하며, 그라인드스태프(Grindstaff)는 함께하는 선교의 특징 3가지를 ‘자발적, 실제적, 연합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FMB의 함께하는 선교는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라는 표어 아래 발전해 왔으며, 비전 2030을 확립하고자 전방개척선교, 토탈멤버케어, 한국식 협동선교에 힘쓰고 있다. 한국침례교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개교회 중심의 선교를 탈피하고, FMB 본부와의 협력을 고려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간의 신뢰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FMB의 한국식 협동선교(Korea Cooperative Program, KCP)의 열매를 기대해 본다.

#### V. 사례발표 : 성광교회 선교사역-유관재 목사(성광교회 담임, FMB 이사)

1. 선교의 기본 방향 : 파송선교사 중심, 팀 사역, 교회 개척

##### 2. 선교 전략

- 1) 미전도 지역과 이슬람 지역에 우선적으로 파송
- 2) 사역의 열매가 ‘영혼을 세우는 사역’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을 강조
- 3) 반드시 훈련을 받고 현장에 파송
- 4) 선교의 최고 우선순위는 언어 습득

3. 후원원칙 : 정기 선교비와 더불어 특별 사역에 대한 추가 지원,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항공비 지원, 병원 진료비 지원, 국내에서 지낼 수 있는 숙소 지원, 3년마다 파송선교사 대회, 정기적으로 선물 보내기

#### VI. FMB 실행위원 위촉

FMB는 이번 선교포럼을 통하여 14명의 실행위원을 위촉하였다. 주민호 회장은 “포

럼을 통하여 해외선교회가 하고있는 일들을 목회자 여러분들이 보고듣게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지역교회와 함께 감당하고자 합니다. 함께가기 위한 목사님들을 더욱 세우기 위해 포럼이 진행되어 왔고, 이번 선교포럼에서는 특별히 실행위원 분들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위촉식에서 밝혔다.

##### 1. FMB 실행위원

- 1) 선교에 헌신된 교회의 목회자
- 2) 선교 현지 교회와 현지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목회자
- 3) 선교포럼 3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희망자

2. 실행위원 구조 : 해외선교회 이사의 안내와 이사회 협업 구조, 해외선교회 지역 실행 위원

##### 3. 실행위원의 역할

- 1) 해외선교 확대와 성숙을 위한 중심적 역할
- 2) 해외선교회와 지역교회 및 지방회 간 소통과 연합의 통로
- 3) 선교를 위해 직능별 전문가로서 역량 발휘
- 4) 은사와 전문성으로 선교사 지원과 섬김
- 5) 해외선교회 20개 지부 모임 시 강사 대상

##### 4. 특전

- 1) 최신 선교 소식 제공
- 2) 정기적으로 세계 선교지 현장 동정
- 3) 교회 선교 교육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제공
- 4) 선교 관련 행사와 정보의 우선 순위 배정
- 5) 교회의 단기선교 안내

##### 5. 실행위원 명단

정인환 목사(신촌중앙교회), 이창순 목사(서부교회), 정명진 목사(자유교회), 안창국 목사(라이트하우스고양교회), 장용성 목사(주님이꿈꾸신교회), 김명섭 목사(광터교회), 서영준 목사(광염교회), 김웅년 목사(세종늘사랑교회), 이관형 목사(조이풀교회), 천명기 목사(대구영광교회), 이문옥 목사(목원교회), 조대식 목사(신태인교회), 윤보열 목사(삼광교회), 차진승 목사(새밤교회)



## We are ONE! FMB MK 캠프 & 고3 Re-Entry 프로그램



| 문하영 간사 (FMB)

할렐루야! MK(Missionary Kids) 캠프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획부터 준비, 진행과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사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We are ONE"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약 50여 명의 MK가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MK들을 초대하여 항공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참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에 재학 중인 MK 선배들과 미리 연결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MK 캠프를 통해 FMB MK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어디에 있든지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리고 선교사 자녀로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박 3일 동안 MK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캠프의 시작은 양근원 MK가 오프닝 찬양을 맡아 참석자들이 이번 캠프의 주제처럼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본국사역관의 안진오 목사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라는 주제로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으며, 요셉과 그의 가정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는 IMB 설훈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이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며, 그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알려주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보냄 받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로 마음이 무거웠던 MK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더크로스처치 청년교회 부담임이자 BCM(Baptist Campus Ministry) 총괄, 더크로스처치 선교부 디렉터로 섬기는 이근영 선교사님의 기도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근영 선교사님은 카이스트 박사 과정 중 카이스트에서 일어난 기도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중보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강의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이며,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캠퍼스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은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참가자들이 캠퍼스에서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독려했고, MK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더크로스처치 찬양팀 레비스탕스가 찬양을 인도하며, 모두가 자유롭게 기뻐 뛰며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은 더크로스처치 담임목사이자 FMB 이사이신 박호중 목사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주제로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찢어져야 할 휘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됨의 정체성과 권위를 회복해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참가자들은 무대 앞으로 나아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 선교사인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들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틀간의 예배를 통해 회복과 결단에 대한 간증을 조별로 작성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마지막 날 MK 간증 시간에 7명의 MK가 자발적으로 나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MK들이 혼자 어려움 속에 고립된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회복을 함께 나누면서 캠프의 주제처럼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 파송 예배에서는 FMB 이금주 선교사님께서 "성령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FMB 1호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참가자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하며 예배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 Part 2. 교제와 배움의 시간

이번 FMB MK 캠프에서는 은혜로운 집회뿐만 아니라 MK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었습니다. 교제의 시간으로는 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국제 KOSTA 강사인 최일호 전도사님이 진행하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MK 네트워킹을 위한 FMB 소개시간과 학교별/지역별 모임, 더크로스처치에서 준비한 'MK의 삶'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창작

물을 만드는 팀 빌딩, 그리고 무더위를 날릴 물총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움의 시간으로는 ‘해시태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선택 특강이 있었습니다. 1)취업 준비는 유튜브 80만 구독자 채널을 운영하며 (사)다음세대 리더십 본부 대표로 활동 중인 이준희 집사님, 2)건강 관리는 파나마 선교사 자녀인 고지웅 MK, 3) 피부 관리는 ‘미르페’ 부원장인 김소담 원장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조별로 “MK의 삶이란?”이라는 주제로 만든 릴스(짧은 동영상)를 다 같이 관람하고, 더크로스처치 박호중 목사님의 축사, 신갈렙 총무님의 격려사와 마무리 기도로 캠프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북한산 천연옥 워터파크로 이동해 물놀이를 즐기고, 다 같이 수박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Part 3. 고3 Re-Entry 프로그램

캠프가 끝난 다음 날에는 고등학교 3학년 MK(16명)를 대상으로 Re-Entry 후속 프로그램이 연희동 본국사역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리엔트리(Re-Entry)는 재입국, 즉 선교회에서 모국으로 장기간 귀국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리엔트리 과정에서 많은 MK가 문화 충격, 정체성 혼란, 생활 적응의 어려움, 언어의 장벽, 신앙생활의 어려움 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FMB에서는 MK사역연구소 소장인 MK네스트 한상희 목사님을 초청하여 리엔트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두 조로 나누어 MK들이 스스로 교통수단을 이용해 길 찾기, 재정 관리, 문화 체험 등을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전 리엔트리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 MK 캠프 간증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 참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 제 자신을 바치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다

집했고, 주 안에서 거듭나고 싶다는 갈망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 태국mk-

“기도 중에 정말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주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의 것들에 눈과 귀가 막혀있었는데 비로소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  
- 베트남mk-

“이번 기회에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셨으며, 과거의 나의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으며 나는 방향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음을 느꼈으며 나에게 어릴 때 전도하던 기억, 가정예배 드리던 기억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예수님을 찾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당당할 수 있음을 느꼈다.”  
- 한국mk-

“캠프를 통해 주신 건 바로 끝없는 사랑이었다. 사실은 내 승리라고 생각했던 현지학교에서의 적응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셨고, 잊으려고 애쓰고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끄꿍 앓았던 나의 아픔마저도 주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셨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마저도 나를 향해 오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mk-

캠프가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TCC & FMB MK 스태프들의 헌신과 여러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크로스처치(박호중 목사)의 전적인 후원과 협력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교회가 함께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는 후원 교회 명단이며, 캠프 후 감사 편지와 캠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가 MK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역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더크로스처치(박호중 목사), 떼소로(박준형 대표), 샘깊은교회(손석원 목사), 성광교회(유관재 목사), 전국여성선교연합회, 새소망교회(박종철 목사), 목양교회(강민석 목사), 지구촌교회(손경훈 목사), 디딤돌교회(임성도 목사), 중문교회(장경동 목사), 세종선한목자교회(문영호 목사), 흥성교회(최윤중 목사)

# 치앙마이 지부장연례회의를 마치고



| 문승호 (FMB / 국제총무)

지난 9월2~6일, 치앙마이에서 해외선교회 지부장연례회의를 가졌다. 해외선교회 20개 지부에서 40명의 지부장 부부와 본부 리더십과 팀장 그리고 문기태 이사장과 박호중 이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지부장연례회의는 해외선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모였다는 것과 20개 지부에서 지부장 전원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주민호 회장은 이번 지부장연례회의에서 해외선교회가 선교공동체로서 함께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와 방향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FMB의 사역 목표를 복음전파, 제자훈련, 교회개혁, 지도자 개발에 있음에 강조했다. 그러므로 현장선교사는 이러한 사역 목표를 숙지하고 그 목표를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점을 주지했다.

이러한 기본 방향성에서 시작된 치앙마이 지부장연례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각 지부의 현황과 당면과제들, 각 지부별로 본부에 대한 기대, 전쟁과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관리 및 비상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선교사 메뉴얼 초안 검토 및 논의 그리고 주민호 회장의 본부 선교행정 메시지 등이었다.

이번 각 지부 보고 내용에 나타난 특이 사항은 많은 지부가 해외선교회의 소속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연합 및 협력을 요구사항이었다. '함께하는 선교'의 슬로건아래 지부 차원의 사역과 협력 사역 등의 주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함께하는 선교에 대한 지부장들의 인지와 인식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면이 드러났다. 오랜 시간 동안 해외선교회의 선교사들이 개별적 사역을 해왔고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열매를 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부장이나 지부의 존재는 소속이나 단순 교제를 위해 필요했으나 점점 해외선교회의 선교 목표와 함께하는 선교를 위한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과 지진 재난 등으로 인해 관심이 깊어진 위기관리 및 비상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현장의 지부장들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실제적인 위기관리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전쟁 발생시에 위기관리기금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현장에서 위기관리 팀장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소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실제로 위기관리대책에 반영되고 실행되기까지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논의였다.

이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한 것은 선교사 메뉴얼이었다. 해외선교회는 정관이 있고 본부 내규와 시행세칙이 존재한다. 내규 안에 필요와 상황에 다른 선교사의 행정 지침이나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포괄적이며 전반적인 선교사 메뉴얼이 일괄성 있게 편집된 적은 없었다. 이번에 미완성이긴 하지만 선교사 메뉴얼 초안을 편집하여 지부장

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선교사 메뉴얼에 포함된 주제는 1) 선교사역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신학 및 철학적 기반, 2) 과거에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및 성추행 대응, 3) 선교사직이 종신직으로 여겨지던 인식을 벗어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교사 책무를 다할 때 인정하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으로 선교사 신분의 명시화, 4) 선교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재정 투명성, 5) 선교사역을 확대하고 충성스럽게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명시하여 선교사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선교사역 확장 및 지속적 지원, 6) 선교사와 그 가족의 필요를 해소하여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사 가족지원, 7) 선교현장에서 위기대응 및 멤버케어, 8) 일관성 있는 선교행정, 9) 현장 선교사가 임의로 행동하지 않고 선교책무와 주어진 선교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선교사 메뉴얼에 대한 토론은 3시간씩 이 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석자 55명을 6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토론을 하였고 토론 후에는 패들렛(padlet.com)을 사용하여 조별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메뉴얼이란 것이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안맞을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 메뉴얼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해외선교회의 목표에 맞는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사들과 본부 리더십은 매 식사 시간마다 지부장들을 돌아가며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토론을 지속했다. 또한 식탁의 대화를 통해 삶과 사역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매우 유익했다는 반응을 얻었다. 이런 대화의 장은 해외선교회가 전체적으로 소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주민호 회장의 메시지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본부의 선교행정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선교사의 정체성과 책무 그리고 선교의 방향과 목표에 맞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점검하게 했다. 선교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존재와 사역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30비전의 핵심가치인 공동체성, 성장,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현재 본부는 2030비전에 따라 지역교회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만만세운동과 선교축제를 통한 실제적인 선교 참여를 이루어 내는 노력이 있었다. 선교현장과 선교사들과 관련해서는 지부 사역을 강조하고 지부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편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부 행정의 실제적인 면에서 계발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했다. 그중에 MK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MK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결과였다.

두드러진 본부의 진보 중에 하나는 선교사 교육 시스템의 마련이었다. 이병문 훈련원 부원장의 발표를 통해서 신입선교사 훈련만이 아닌 5~10년 정도의 경력 선교사를 훈련하는 Missionary Upgrade Training-Professional(MUT-Pro)의 시작과 좋은 피드백과 평가를 받고 있는 Missionary Upgrade Training(MUT-Senior) 시니어 선교사 훈련이 잘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지부장연례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선교사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부장 중심의 토론과 발표가 중심이 되었고 적절한 분량의 본부 시간이 균형있게 주어졌다. 갈수록 지부장연례회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본부에서 사역하며 해외선교회가 진보하고 발전하는지 느끼지 못했는데 지부장 연례회의를 통해서 일년을 정리하고 지부장들의 목소리가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한 진보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 중앙아시아 선교사훈련센터 설립 컨설팅



| 정희연 간사 (WMTC)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세계선교훈련원(WMTC) 스텝은 중앙아시아 선교사훈련센터 설립 컨설팅을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다녀왔다. 컨설팅은 중앙아시아 신학교 대학원에서 9일, 10일 이틀 동안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10명의 FMB 선교사가 참여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뤄진 6개 교회와 선교지를 탐방했다.



컨설팅은 이병문 부원장(WMTC)의 선교사훈련의 개요, 기본, 목표, 방법, 스텝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조별 토론, 케이스 스터디로 진행됐다. 매 강의 후 조별로 나뉘어져 토론하며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질문으로는 ‘중앙아시아 침례교단 선교사의 허입조건’, ‘선교사훈련을 통해 선교사의 자질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까?’, ‘현재 사용 가능한 장소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합숙과 원활한 교제가 가능한가?’ 등이 있었고, 참가자들은 현지에 적합한 센터 설립을 위한 고민을 나누었다.

컨설팅을 마치고, 참가한 한 선교사는 “훈련원을 시작할 때, 파송단체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컨설팅을 듣고 난 이후, 현재 중앙아시아 침례신학교가 갖고 있는 강의실, 기숙사 시설들을 잘 활용해 훈련원을 시작해볼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병문 부원장은 “시작하지 않아 0점을 받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시작해서 40점을 받은 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컨설팅이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점은 2024년은 WMTC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했다는 점이다. WMTC는 30년 전 미남침례회 해외선교회와 여러 교회의 도움으로 선교사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고, WMTC가 받은 도움과 쌓아온 노하우를 다시 선교지에 전할 수 있음에 의미가 있었다. 중앙아시아는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로 현지인 선교사가 이미 배출되었고, 이들과 앞으로 배출될 현지인 선교사들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선교사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1일부터 13일까지 WMTC 스텝들은 교회와 선교지를 탐방했다. 교회를 방문해 사역 소개를 들으며 침례교 선교의 자랑스러운 선교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한 교회들의 모습은 비슷한 듯 달라 보였다. 교회의 외관은 비슷해보여도, 사역의 주대상이 되는 민족에 따라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도 했고, 사역의 방법도 달랐다. 민족에 따라 다른 선교 전략과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소개를 듣고 교회를 둘러보며, 한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 MUT pro 일본 선교사 훈련 소감문

### ● 이동주 / 광숙

충실하게 짜인 MUT-Pro 연수를 받으면서 우리는 과거의 선교사역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선교지에서는 지금까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강의를 들으며 마지막 은퇴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고 타임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박사옥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현재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 일본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중년 부부와 청소년기 자녀들을 위한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좋았던 것은, 일본이라는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강의 중간중간의 커피타임, 삶을 나누는 브리핑 시간, 아이들도 동참하는 왓자지결한 식사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 부분도 생각나 마음이 아팠다. 나이 들어가는 우리 부부가 서로 공존하며 좋은 선교사가 되는 한 줄기 빛이 보인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전환기에 처한 우리 부부가 끝까지 선교사로서 완주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욕이 생긴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함께 이 길을 가는 동지들이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의 불모지 일본을 향해 달려 가보겠다. “침례교는 일본으로, 일본은 주님께” 크게 외치면서 말이다.

### ● 하형식 / 최경희

#### MUT-Pro 훈련의 장점

1. 그동안 사역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참 좋았다.
2. 부부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이 필요했는데 상담을 통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3. 일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훈련을 받음으로 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
4. 일본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지만 서로 간에 깊은 사정을 잘 알지 못했으나 디브리핑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잘 알게 되었다.



5. 박사옥 목사님을 통해 일본 선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에 반영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6. 선교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회장님, 부원장님 부부

#### MUT-Pro 훈련의 단점

1. 훈련 이후에도 해야 할 과제가 많아 숙소에서 서로 교체하는 시간이 없어 아쉬웠고 저녁에는 함께 충분한 교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2. 수요일에는 근처에 후원자들 방문이 필요했는데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 아쉬웠다.

### ● 황기영 / 최정화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 주시고 극진히 섬겨주신 세계선교훈련원 부원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스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강예배와 영성집회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고, 디브리핑시간과 동료선교사님들과의 합숙을 통해 깊이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을 다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부원장님 강의를 통해 선교사의 노후준비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사옥 목사님을 통해 일본교회와 일본침례교연맹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인 일본교회 일본 목사님들을 더 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맞추며 섬기고 싶습니다. 섬과 힘과 소망을 얻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다시 사랑하는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 윤정현 / 이경미

이번 MUT-PRO 훈련은 대전에서의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현지에서 줌을 통한 사전 훈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중식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열정 있는 강의를 통해 훈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훈련이 시작되고 첫



시간인 Debriefing 시간에는, 같은 땅 일본이지만 십인십색의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공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실시한 심리검사 등의 결과를 갖고 개인상담 부부상담을 받으며 자기 자신과 부부관계를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메인 강사로 오신, 일본침례교연맹의 박사육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일본 선교와 일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섬기고 있는 현지교회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는 마음과, 주어진 환경에서도 한 걸음 더 힘을 내서 나아가서 주어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씩씩하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선교사로서의 일본에서의 걸음을 위해 영적, 정서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강의를 끝나면 예쁜 백일홍이 핀 침신대의 교정을 지나 구내식당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동료선교사님들과 차도 마시며 즐거운 교제의 가졌습니다. 저녁 시간은 여러 교회의 섬김으로 다양한 한국 요리를 맛있게 먹으며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게 느껴지는 2주였지만, 뜨거운 2024년 여름날 대전 세계선교훈련원에서의 선교사훈련은 저희들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주님이 주신 선물이자 도전이고 은혜였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샬롬”을 기도합니다.

● 이재호 / 이용숙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지부 MUT-pro 훈련을 받고 보니 다시 사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사역들을 돌아 볼 때 성과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지만 다시 재점검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없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내는 함께 길을 걷고 싶은데, 벌써 저만치 앞서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자주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 보살핌보다 화만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하는 아빠, 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녀에 대하여 더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터 더욱 돌아보며 한 부분을 채우고 고치고 다듬어지는 선교사가 되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박철호 / 조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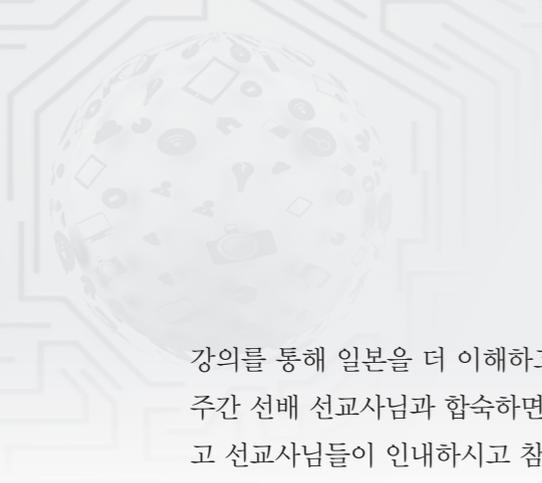
작년 여름, 일본지부에서 훈련을 함께 받자고 결정을 하고 몇 개월간 기도와 후원 등을 요청하며 여러 가지를 설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지교회에서는 업그레이드 훈련을 간다고 하니 모두들 “업그레이드되어서 돌아와서 우리도 업그레이드 해 주세요” 라며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 또한 훈련 기간 중 MK들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십년 이상을 일본지부로 모임을 갖고 교제를 했었는데, 첫날 디브리핑을 통해서 선교사님 개인의 살아온 환경과 상황들을 웃음과 눈물로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좋았습니다. 또한 중년부부의 이해와 갈등의 강의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어 변화되어가는 시기에 중년으로서의 인정과 중년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면서 듣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세 자녀에게 모국의 삼촌 이모같은 선교사님들, 또래 친구들, MK선생님들과의 만남으로 한국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정체성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환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

● 이형기 / 정영자

저희 부부는 예기치 못한 교회 사역부터 선교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사역에 적응하는것이 우선이 되었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대로 현지 언어와 현지 문화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의 시간들이 없었고 가질 여유없이 교회 중심으로만 3년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MUT-Pro라는 훈련을 통해 세계선교훈련원에 들어와 지난 사역들을 뒤돌아 보고 그동안 맡으누교회 사역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들과 방향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강의를 통해 일본을 더 이해하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브리핑으로 시작하여 2주간 선배 선교사님과 합숙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고 선교사님들이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며 지켜온 선교사역들,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지나온 선교의 삶들을 나눠주셔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힘을 얻는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본땅에 일어날 부흥을 꿈꾸며... 2주간 무더운 날씨에 사랑으로 섬겨주신 훈련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박희우 / 림해월

이번 MUT훈련은 2주간 같은 지역에서 온 일본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각 선교사님들의 간증 갖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일본 선교지에서의 초창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내 이야기인데 나도 그랬었는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선교초기에 느꼈던 그때의 그 기억과 그때 느꼈던 감정이 올라오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적응하느라 꺾꺾 누르며 살아왔던 기억과 감정이 올라와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였기에 느낄 수 있는 동변상련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MUT 훈련중 각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과 섬기고 있는 교회와 사역지를 틀들을 사용해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른 진단 나가갈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2, 초6, 초3 아들을 세명 둔 엄마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사역과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느끼며 지냈었습니다. 아이들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으며 선교지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번 엠유티 훈련에서 스텝분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자녀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누림의 미를 만끽할 수 있었고 선교지에서는 두 사춘기 아이들과 내전을 자주 겪었었



는데 2주간 주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자녀 또한 오랜만에 엄마 좋아요, 재밌어요. 놀기만 해서 넘 좋아요. 고백하더라고요.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공동체의 진정한 교제를 맛보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새힘도 받고 동역자들로 인한 마음의 힘도 생긴것 같아 선교지에 돌아가서 이 동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환 / 김윤미

일본에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즈음, MUT-PRO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받았을 때 GMTC에서 선교훈련을 받았기도 했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계획들을 세워야 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불쾌감과 함께 우리가정과 나에게 MUT-PRO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앓고있던 목디스크로 인한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마음속에 있었으며 여러 가지 불안감과 함께 MUT-PRO교육을 받기 위해 대전까지 오는 것에 불쾌감이 내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으면서 차츰 제 마음속에 있는 불쾌감과 불안감은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부원장님을 비롯한 스텝분들의 항상 웃는 얼굴과 친절한 배려들이 제게 있는 불안감과 불쾌감을 없애주셨습니다. 특히 부원장님의 밝은 표정과 배려심이 넘치는 언행이 제게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연장자에게 받아보는 세심함이 넘치는 배려가 제게 가장 큰 기쁨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및 개인 상담은 제게 있어 큰 위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시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깊은 배려와 함께 이번 MUT-PRO교육은 제게 있어 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받은 아주 뜻깊은 교육으로서 다시 한번 MUT-PRO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망설임 없이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MUT-PRO강사진과 스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진으로 보는 MUT-PRO 일본선교사훈련



## MUT senior 훈련 소감문

### ● 신명근 / 임효진

선교지에 있을 때 MUT 훈련을 더 일찍 받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재학중에 있어서 선택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기숙학교에 들어가면서 남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훈련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훈련이 안식년을 가지지 못한 저희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또한 22년차 선교사로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받고 싶었습니다. 본부에서 저희가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 50대 초반 중반이었던 저희는 우리가 벌써 시니어에 들어가야 하나 의문이 들어서 문의를 했더니 저희가 사역기간이 20년이 넘어서 시니어팀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훈련에 오기전 선배님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걱정이 앞섰는데 오히려 막내라고 선배선교사님들이 많이 챙겨 주셔서 황송했습니다. 훈련내용이 저희에게 꼭 필요한 강의들이고 또한 동학사로 소풍을 갔는데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주제별 토의 시간에 여러 나라의 선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한 스텝분들의 말없는 섬김에 잔잔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 ● 장인식 / 홍정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의 고투를 벌이던 중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난 2년 전부터 매년 미루어 왔던 시니어선교사훈련을 올 해는 꼭 받아야겠다 결심하고 주변의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을 뒤로하고 훈련원에 들어왔다. 훈련을 받는 첫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렘3:16)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도전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쉽 없이 주의 뜻을 행하려 하지만, 전과 같지 않은 많은 현실적인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건강의 장벽, 관계의 장벽, 재정적인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펼쳐진 이 시니어선교사훈련은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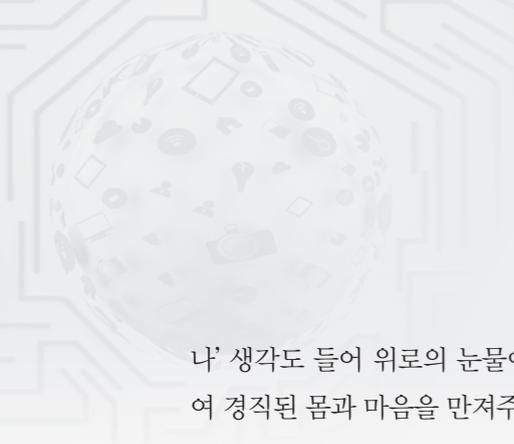
었다. 우리와 동일한 장벽을 느끼면서도 미래의 비전을 놓지 않은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 침례교회외선교회(FMB)와 또 몸을 이루며 늘 큰 힘이 되어 준 파송 교회와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도후원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하며,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격려를 얻게 되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훈련원에서 생활하며 훈련을 받는 이 시간들이 우리 사역의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좌표 찍기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나이에 무슨 훈련을 또 받는가 라는 의구심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훈련이 좀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축적해 가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 이수정

시니어 선교훈련 신청을 해 놓고 받을 다쳤다. 이 훈련이 없었으면 나는 좀더 빨리 들어왔을 것이다. 시기를 놓쳐 수술은 못하지만 3개월 이후 통증 완화수술을 할 수 있다니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어제는 소풍을 다녀왔다. 강샘께서 발이 아파 빨리 걷지 못하는 나를 위해 짝꿍이 되어 주셨다. 만약에 나 혼자 뒤쳐져 갔다면 나는 동학사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나와 같이 거주했기에 다른 샘들과 사진 찍는 기회를 놓치셨고 레크레이션 시간에도 늦으셔서 같이하지 못하셨다. 사진이 단톡 방에 올라왔을 때 가슴이 찡하도록 감사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남을 위한 배려가 베푸는 자에게는 희생이, 받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매 강의 시간도 놓칠 수 없는 귀한 배움의 시간들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조영래 / 서양미

학원 사역을 하는 나로서, 새 학기가 되어 주 중 6일 수업을 인도해야 한다. 본부 선교 훈련원에서 시니어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MUT)이 있다고 남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순간 학교 일 보다 MUT 훈련이 우선 이라는 생각이 들어 수업을 Online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부탁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입국을 했다. 첫째 주 이틀동안 Debriefing 시간에 선교지에서 겪었던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독일 선교 25년을 돌아 보게 되었고 아쉬움과 감사의 감정이 교차하며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



나' 생각도 들어 위로의 눈물이 나왔다. 앞으로 있을 모든 프로그램 시간 시간을 통하여 경직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실 주님께 감사드린다.

● 임재영 / 김진복

올해 만 64세 이제는 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사역지에서 훈련 시작 1주일 전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훈련비용 지원은 파송 교회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과 선교사 연장에 대한 결정은 교회 리더십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담임목사님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교사 사역을 접어야 하는가? 불연듯 캄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선교지 사역 이후에 대한 준비 부족과 65세 이후 귀국 후 내 삶에 대한 이해 부족과 노후 준비 부족이 가장 크게 와 닿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을 떠나 선교지에서 살던 나를 아무런 준비 없이 귀국하는 노후 선교사를 누가 반가워하겠는가? 2주간 지나면서 함께 참석한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동병상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의기투합하여 훈련 이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위한 훈련원 가족분들(이병문 부원장, 차지혜 실장님, 정희연 간사님)의 정성과 사랑과 기도로 섬겨 주셔서 훈련원 생활은 참으로 편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선교지 현장에서 신학교 사역과 가정교회 개척이라는 새로운 사역이 저희를 부르시고 있고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새로운 협력 파송 및 후원자 발굴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지 현장으로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 박래득 / 최은영

네팔에서 선교사의 삶을 마칠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하게 비자가 거부되었다. 안식년을 계획했지만 파송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팬데믹 기간에는 선교기관 사역을 하게 되며 약간 지쳐 있는 상태로 나이의 앞 숫자가 바뀌었다. 이 상황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선교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부부에겐 새로움에 대한 도전도 꺼려지고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를 알아가는데 쏟을 에너지도 부족했다.

그러나 훈련원에 입소하여 선배 선교사들의 스토리를 들으며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



나님의 선교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나 또한 디브리핑을 통한 지난 사역과 삶을 정리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동행하셨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MMPI와 부부 완성도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우리 부부의 현재 정신건강과 친밀도를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하며 아직 건강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 또한 감사하였다. 시니어라는 훈련명이 부담스러웠지만 맞이하게 될 은퇴와 사역이양의 때를 인정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22명의 선교사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풍성한 식사 교제를 하며 스스로없이 대화하고 웃으며 친밀함을 나누는 추억들도 즐거운 기억이다. 세계선교훈련원의 아름다운 교정과 더불어 한국의 단풍을 시니어 선교사들과 함께 누리는 2024년 가을의 만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다.

● 조강식 / 박조이

삶의 여정인 선교현장에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제 계획이 아닌, 해외선교회 본부에서 훈련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훈련은 매 시간마다 강의하는 내용은 다시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면서 소명과 사명을 다시 재 정립하는 회복과 만남 시간입니다. 디브리핑을 통해 참석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의 삶의 여정을 듣고, 만나고, 공감하는 감격의 눈물의 시간 이요,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선교사님들이 술선수범하여 저녁식사 섬김으로 웃고, 먹고, 배부름으로 회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요리사이신 000 선교사님의 섬김은 따스한 온돌방에서 사랑을 느끼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이번 한국의 입국은 “한반도 대한민국 국,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 ‘창조 교육’이 ‘교육 과정’으로 채택되어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중보기도를 대학교 총장님, 많은 교회들과 공유하는 소명과 사명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정에 있어서 선교사의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긍휼하심입니다.

● 김용관

MUT는 1차적으로 선교사에게 주어진 필수인 훈련 과정이라서 흔쾌히 참가신청을 하



게 되었다. 90년대에 파송되어 세상과 선교지의 급진적인 변화에 마지막까지 달려갈 사역을 재 정립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원활한 이양과 은퇴 및 귀국 후 재적응, 돌아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Debriefing을 통해 경험담, 소명, 성장의 과정, 거듭남,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바라기는 지도자로서 평생 개발 강의 중에 finishing well을 통하여 선교의 마지막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 출구 작업과 함께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때 최종적 목표인 선교 이양과 은퇴의 모든 계획들을 준비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송안드레 / 강사라

시니어 선교사들이라서 그런지 서로간에 배려와 섬김이 있어서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이병문 부원장님과 WMTC 스태프들의 세심함에 회복의 시간을 맛 볼 수가 있었다. 지난 32년의 세월을 돌아다 보니 게으름 없이 열심히 달려온 왔는데 중간의 평가가 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것 같다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남은 기간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 해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남은 기간 새로운 사역을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사역을 한 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총체적 사역 (Holistic ministry)”을 개념화 시키고 일반화하여 정리해서 후발 주자 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목표를 두게 되었다. 여러가지 심리검사와 상담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참 배움은 늘 도전이 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변화하는 세계기독교와 선교 동향을 통해서 그간 모르던 부분을 인지하게 되었고 세계 선교의 흐름을 숙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와서 가을을 만끽하고 힐링을 할 수 있었고 식사로 섬겨 주시는 교회들, 김중식 원장님과 바쁜 여정 속에서 달려와 격려하고 강의해 주신 주민호 회장님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쉽과 재충전은 물론 남은 사역 기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선교의 경주를 어떻게 마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어 행복하고 기대가 된다.

● 정데이빗 / 강메리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기동을 졸업하고 한국을 떠난 시간이다. 10월에 MUT 훈련



이 하기동에서 있다고 한다. 참석하기에는 복잡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꼭 참석하고 싶었다. 그곳에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헌신과 특별했던 기도와 소명, 훈련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 MUT 훈련은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30년 전의 소명과 동역자들을 회상하며 현재의 나 자신을 재 점검하는 시간이기 기대했다. 10월 22일 훈련은 시작되었다. 훈련 지원자 중에는 안면이 있는 분도 보였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다. 가정마다 배정받은 숙소도 모두 훌륭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었고, Debriefing, 중년이후의 부부관계, 최신 선교 동향 그리고 선교사 발달 주기와 멤버 케어 등의 과목이 첫번째 주 시간표였다. 생소한 과목은 아니다.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다루어 본 과목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에 참석하기를 참 잘했다. 지나온 사역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이번 훈련을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주신 많은 보이지 않은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 김종철 / 김양숙

훈련 전 기대와 걱정 : 30년 만에 받는 훈련은 기대와 함께 걱정도 있었습니다. 훈련 비용이 부담되었는데, 파송 교회에서 기쁨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므로 편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디브리핑의 축복 : 9개 나라에서 참석한 선교사들의 디브리핑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 그 땅에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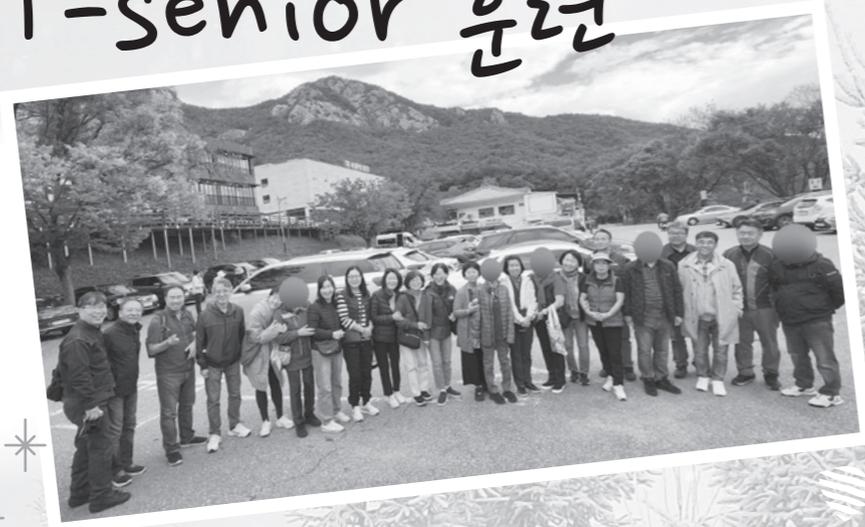
선교사들과의 교제와 행복 : FMB라는 소속으로 사역을 했지만, 서로를 잘 몰랐었는데, 함께 생활하며 훈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얻는 지혜: 전문 강사들의 지혜와 경험담이 고국을 떠나 생활하던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웃음 : 선교 동지들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함께 맛집을 다니며 작은 일에도 웃고, 선교지의 소식을 나눌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MUT 훈련의 의미 : MUT 훈련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진정한 힐링과 휴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삶이 되돌아보고, 다음 사역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MUT-senior 훈련



## 인턴선교사 소개 및 기도제목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FMB) 인턴선교사 제도는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지를 보고, 배우며, 경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턴제도는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연 2회(2, 8월)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번의 훈련이 시행되어 총 20명의 훈련생이 수료하였으며, 그중 18명은 인턴선교사로 선교지에 파송(예정)되었거나 기간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인턴선교사 훈련은 10박 11일 동안 성경 중심훈련과 현장 중심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성경 중심훈련은 '십자가 복음(여주봉제)' 강의를 통해 다시금 복음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현장 중심훈련은 타문화의 이해, 선교지 리서치, 국내 외국인선교지 미션트립 등 선교지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예비 인턴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턴선교사 제도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청/장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 문의 : 박찬미 간사 010-5379-8683

### ● 서범석



- 파송국가 : 멕시코
- 파송교회 : 산성침례교회

“...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세기 12:1)

#### ■ 기도제목

1.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도록
2. 출발(비자, 입국, 재정, 건강 등)하는 과정과 한국으로 귀국하는 모든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3. 멕시코 문화와 스페인어를 배우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 ● 이고백



- 파송국가 : 우즈베키스탄
- 파송교회 : 경주남부장로교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로마서 6:13)

#### ■ 기도제목

1.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2. 매순간 예수님을 따라 선교하게 하소서
3. 우즈베키스탄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 ● 이효민



- 파송국가 : 미정
- 파송교회 : 경주남부장로교회

### ● 진하임



- 파송국가 : 인도네시아
- 파송교회 : 글로벌새벽이슬교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디모데후서 4:7~8)

#### ■ 기도제목

1.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2.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선교지에서 만날 영혼들을 사랑하고 밭게 될 그 땅을 사랑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3. 인턴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나가기 전 해야할 준비들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로마서 8:11)

#### ■ 기도제목

1.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2.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3.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 FMB 인턴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 ● 이고백

고등학생 때, 대학생이 되면 20대의 십분의 일인 1년을 선교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잊어갈 때쯤, 인턴 선교사 제도를 알게 되었다. 주님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고민을 뒤로 미뤄두고 훈련을 신청했다. 결국 훈련을 통해 선교에 대한 나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교의 길로 부르셨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훈련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박 2일간의 김해 미션트립이다. 이 시간을 통해 선교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순종과 기쁨으로 참여하는 동역자의 중요성을 배웠다. 4명의 훈련생은 어린이 사역이라는 미션을 받았고 함께 스킷 드라마와 찬무, 레크레이션, 복음 팔찌 만들기를 준비해 갔다. 그곳에서는 계획하고 준비한 대



로 흘러가지 않거나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주민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스킷 드라마를 할 때는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가 이처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미션트립 기간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소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미션트립을 떠나기 전 김해에 있는 어린이들을 두고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났다. 아이들을 만나기도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었고 그들의 눈동자를 보게 하셨다. 대부분 러시아 어린이들이고 중앙아시아에서 온 아이들도 있어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마음이 통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왔다. 이를 통해 주께서 내게 어린이와 함께하는 은사를 주셨음을 발견했고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파송 선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과의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훈련이 중반 즈음,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기도회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가사가 그 시점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고백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원아, 정말 어떤 상황에도 선교할 거니?'라고 물으셨다. 그래서 진심으로 대답했다. '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선교의 길로 부르셨으니 어떤 상황이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소명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제 물러날 수가 없다. 반드시 인턴 선교사로서 열방에 나아가 1년의 시간을 주께 드릴 것이다.

## P500사역,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 이순신 선교사(FMB / 키르기스스탄)

### 들어가는 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선교지 국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선교사들의 사역의 형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필자의 생각과 사역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키르기스 마을 사람들, 면사무소 직원들, 정치인들, 지역의 무슬림들 사이에도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에 맞물려 P500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경과,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본론

필자는 2006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 받았고, 2010년 키르기스스탄으로 사역지를 옮겼다.

2011년부터 여자교도소에 치과진료실을 만들어 진료하기 시작하면서 의료NGO 히포

크라테스를 설립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선교사와 현지인으로 구성된 이동진료팀(치과, 한의과, 부인과, 초음파, 심전도)을 조직하여 장애인시설 진료 및 땅끝마을 장거리 이동진료를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2년 수도 비쉬켈에 선교사 연합사역으로 IT학원을 오픈 했고, 2023년부터 P500사역도 병행하고 있다.

2014년 이슬람 백그라운드의 키르기즈민족으로 구성된 교회를 개척했다. 고군분투하며 유스그룹 중심의 모임을 이끌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위기상황이 오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했었다. 2023년 6월 25일, 아내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다민족교회로 전환하면서 현지인 목사님을 청빙하여 교회를 이양했고, 이는 필자의 영적 사역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돌이켜보니 그 동안 교회개척자와 NGO 디렉터라는 이중직선교사의 삶을 살아온 것 같다.

### 1. P500사역의 태동

2022년 12월, 성령께서 필자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집에서 1시간 30분 거리의 카자흐스탄 접경 무의촌 ○렉마을 보건지소에 치과진료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수 차례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마치고 필자와 면장 및 치과의사가 합의서에 서명, 처음에 1년을 예상했지만 6개월이 채 안되어 2023년 6월 8일, 치과진료실이 완성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비쉬켈의 한 개인치과에서 환자를 진료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고향에 돌아와 밭일과 양을 치던 마을청년 치과의사가 연결되어 그곳에서 진료를 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그는 보건부 공무원으로 취직됐고, 평생직장을 갖게 됐으며, 무의촌이었던 마을은 유의촌이 됐다. 그리고 지척에 모스크를 앞둔 무슬림 마을이자 국가 시설인 보건지소에 키르기즈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현판(“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현판)이 붙었다. 이는 히포크라테스 동역자들에게 상당한 통찰력을 갖게 했다.

키르기즈 시골지역의 무슬림들 중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만으로도 혐오스러움에 얼굴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주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슬람 신앙으로 살아오는 마을의 보건지소에 크리스찬의 도움으로 치과진료실이 완성됐다는 현판의 부착은 우리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했고, 자연스럽게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우리는 이를 P500(Project 500)이라고 명명했고, “키르기스스탄의 무의촌 보건지소 혹은 보건소 500곳에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임을 선포했다. 몇 가지 서류작업과 면에서의 동의, 준비된 치과의사,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등이 미리 준비 된다면, 치과 진료실 하나 만드는데 시간을 더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다만 보건(지)소의 지적에 위치한 모스크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가장 큰 변수였다.

## 2. P500 경과

P2(두 번째 보건지소)도 P1처럼 관련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진행하면서 하나씩 노하우를 쌓아 갔다. P3와 P4를 어렵게 간신히 완성한 뒤, 제3세계 국가에서 의료선교의 최종 목표, 의료NGO사역의 방향, 마을 주민들의 실제적인 필요, 법과 책임 소재, 키르기즈 무슬림들과 모스크의 이맘, 지역 면장, 군수, 시장, 국회의원, 보건부 및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과 정서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깊이 있게 토론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동시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했다. 그 때부터 우리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

P5 부터는 지역의 면장, 군수, 부군수, 시장, 시의원, 군의 의료총책임자, 국회부의장, 지역 경찰 들의 축하와 비호를 받으며 놀라운 속도로 치과진료실이 완성되었다.

P8은 그 시작부터 완성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오래 전 이동진료의 현장에서 만났던 현 국회부의장으로부터 쿠르뿔○ 마을을 추천받았고, 그 마을의 탐사를 위해 2023년 11월, 3일 동안 이동진료를 다녀왔다. 카자흐스탄 접경지역의 대단히 외딴 마을이었던 만큼이나 외부인들에게 배타적이었고, 진료 장소는 모스크 영내에 있는 면단위 보건소였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바레인의 한 이슬람 단체에서 재정을 투자하여 모스크를 신축 해주었는데, 모스크 영내에 보건소, 게스트룸을 한 단위로 신축해 주었다. 진료 이틀째까지도 굳어진 환자들의 표정에는 외국인이 의료를 미끼로 복음을 전할까봐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수염을 기른 다수의 남자들은 기도시간에 모두 모스크를 갔다가 늦게 보건소에 도착하여 진료를 요청했고, 면장은 게스트룸의 우측 방을 치과진료실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치과진료실 설치 작업을 진행하며 우리는 이곳에 현판이 부착되기를 끊임 없이 기도했다. 2023년 12월 15일, Opening Ceremony날이었다. 전날까지 눈이 정말 많이 내렸고, 이 날은 필자의 18년 선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날이기도 했다. 동역하는 Dr.방선생님과 필자가 그토록 기도하며 바라던 현판을 모스크 영내에서 볼 수 있었다. 오

픈식때 국회부의장이 키르기스스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10년도 넘게 아무도 가지 않는 키르기스스탄의 전국 무의촌들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필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마지막 순서로 모스크의 이맘은 필자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게 해 달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알라)에게 축복을 빌었다.

P11~P14는 4월 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접경 산악지역이며,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이슬람 성향이 쎈 곳 중 하나인 잘랄라밧주 악스군의 보건소 3곳과 국립치과폴리클리닉 1곳에서 Opening Ceremony가 진행됐다. 당시 라마단 금식기간이었고, 이때는 늘 그렇듯이 모든 무슬림들이 1년 중 가장 예민한 시기였다. 그 즈음인 3월 22일, IS에 의해 저질러진 모스크바 공연장 총기난사사건의 여파로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초긴장 상태가 되었다. 키르기스공화국 국회의장은 우리가 비쉬켄 공항을 출발하여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보좌관(호위무사)을 보내 이틀간 동행하게 함으로 오픈식이 안전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도왔다. 비쉬켄 공항에 도착하니 국회의장 전용차가 대기되어 있었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 4곳 모두 아름다운 현판이 부착되었다. 자연스럽게 치과진료실과 현판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기독교를 잇는 우정의 상징이 되었다.

P17~P20도 잘랄라밧주 푝도굴군에서 진행했다. 가고 가도 산 밖에 보이지 않는 마을들이었다. 외국인이 들어갈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철저히 고립된 100% 무슬림 마을들, 어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Opening Ceremony 날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무수한 사람들이 방문했고, 국회의장의 명을 받고 비서실장 일행이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곳 군수 일행도 먼저 도착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푝도굴시 (국가)





종합병원 부원장도 오픈식에 참석했다. P20면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대표께서 정말 고맙다고 제 손을 붙잡으시더니 오랫동안 놓지를 않으셨다.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작은 정성을 크게 받아들이는 그들이 고마웠고,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격했다.

### 3. 키르기즈 의료상황 속에서 P500사역의 의의

키르기스스탄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1,067개의 보건지소(paramedic & midwifery center), 151개의 보건소(family doctor group), 17개의 병원(family medicine center)이 있다. 무의촌인 마을단위 보건지소에는 간호사 1명이 상주하며 주민들의 예방접종, 위생관리와 조산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면단위 보건소에는 가정의학과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보통 2명의 치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보건소 치과진료실에는 대부분 오래 전에 고장난 소련제 치과책어가 1대 있다. 치과장비를 새것으로 설치해 주면 치과재료는 정부로부터 공급 받는다. 시설 관리는 보건소장이 하고, 치과 의사 월급도 국가에서 제공한다. 이로 인해 10,000명 전후의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P500사역이 시행된 20곳 중 18곳에 그들이 자체 제작한 기독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자신들이 도움을 받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에 금이 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무슬림 마을에 20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 만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랜 기간 그 누구에게도 선택 받지 못하여 철저히 버려진 영적인 황무지 마을들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성하게 자란 엉겅퀴를 걷어내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뾰족한 돌들을 걸러내는 작업이다. 언젠가는 치과진료실과 현판이 설치된 무슬림 마을마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견고한 여리고성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마침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지언정!

이 일이 가능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의료적 필요에 대한 긴박성의 공동체적 인식과 1991년 소련에서 독립 후 지난 33년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이 정부에 치과장비교체를 요청해 오고 있지만, 매년 거절을 맞보며 단념하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국가의 Medical Care System의 중요한 한 축인 망가진 Dental Care System이 P500사역을 통해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이 사역이 지속된다면 치과진료가 필요한 전국민에게 실제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지 국가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의료선교의 최종 타겟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게 됐다.

최근 이동진료 관련 국회부의장의 추천으로 국회의장 표창과 P500관련 헌법재판소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었으





며, 키르기즈의 많은 치과의사들과 보건소장, 면장, 군수들과 SNS로 소통하며 가볍게 안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선교에 진심인 후원자 한 사람을 한 지역(보건소)과 1:1로 연결하여 P500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산골짜기 구석구석까지 무슬림 마을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싶다. NGO히포크라테스가 많은 NGO단체들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NGO”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P20까지를 1기 사역으로 매듭 짓고, 잠시 안식일을 신청하여 숨을 고른 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2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 나가는 말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선교현장도 큰 프레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교현장에서 혹시 오랜 기간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돌파를 위해 창조적 파괴의 첫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파도에 올라타길 바란다.

## 2025년 상반기 기관별 사역 일정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 1월 - 제 8기 인턴선교사 훈련
- 3월 - FMB 정기이사회
- 4월 - 중남미지부 정기총회
- 6월 - 상반기 선교사 정기시취

###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 1월~5월 - 현장사역 사례연구 수행(6편)
- 6월 - 제2차 FMB 현장 사례연구 발표회 주최(ZOOM)

### 세계선교훈련원(WMTC)

- 35기 장단기 선교사훈련(신입선교사 훈련, Missionary Pre-field training)
  - 2025년 3월 4일 ~ 5월 22일(12주)
-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issionary Up-grade Training)
  - MUT- Professional : 2025년 6월 24일 ~ 7월 18일(5주)
  - MUT-Senior : 2025년 10월 14일 ~ 11월 6일(4주)
- 선교현지지도자훈련 : 2025년 9월 15일 ~ 9월 26일(2주)
- 인투미션 선교 교육(in2mission)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위원 과정 : 2025년 2월 ~ 3월(매주 화요일, 7주)
  - 인투미션 웨비나 : 2025년 4월 ~ 5월(매주 화요일, 8주)
-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 in2mission

## 인투미션 선교학교

###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n2mission의 단어적 의미**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mission)에 투입(into)되도록 동원하는 선교학교로서,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잡기다. 선교 속으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숫자 '2'는 지역교회와 선교라는 두 개념을 의미하며, 인투미션 선교학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 2. 인투미션 진행안내

-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 선교 교육(FMB 동원팀으로 문의)
  - 기간 : 8~10주(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독서 보고서 등)
- 인투미션 웨비나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초 선교 이론 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8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학 개론 :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이론교육(온라인)
  - 기간 : 매주 화요일,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이현모 교수 전담 강의 + 강의 소감문
-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7주(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
  - 대상 :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강의 + 소그룹 활동

###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 공식 수료증 발부
- 인턴선교사 훈련 자격 인정(2, 8월에 열리는 국내 타문화권 미션트립 및 전도 아웃리치 모두 참여 시 인턴선교사 최종자격 부여)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